

21세기 서울지역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 「동북아 경제거점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심포지움

**일 시** 2003년 6월 27일 (금) 14: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3층 대평홀

**주 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신문, 대한상공회의소

**후 원** 서울특별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협 찬** 삼성전자, SK Telecom

# 목 차

---

## 프로그램

제1주제 동북아 시대 서울의 역할과 비전 .....	3
------------------------------	---

정희수 / 서울경제연구소장

제2주제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자 .....	27
------------------------------	----

이재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3주제 동북아 IT 거점도시 서울의 선택 .....	41
-------------------------------	----

신창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실장

# 프·로·그·램

---

13:30 등 록

14:00 개 회 식

개회사 백용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격려사 김서웅 / 서울경제신문사장

환영사 이명박 / 서울특별시장

축 사 배순훈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

14:30 주제발표

사 회 김기환 /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제1주제 동북아시대 서울의 역할과 비전

정희수 / 서울경제연구소장

제2주제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자

이재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3주제 동북아 IT 거점도시 서울의 선택

신창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실장

15:30 종합토론

유영환 / 균형위 위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이영선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이장영 /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현정 /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비트컴퓨터 사장

한민구 / 동북아위 위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16:30 폐 회

제1 주제

## 동북아시대 서울의 역할과 비전

정 희 수

서울경제연구소장

빈 면

## I. 서 언

### □ 21세기 세계화·지방화 및 정보화의 진행속에서 지역단위 경제권역의 출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대처한 지역발전전략 모색
- 아울러 동시에 나타나는 전세계적인 도시체계의 형성은 도시간의 기능연계 및 형성을 위한 새로운 계층적인 도시구조를 요구

### □ 국가간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국가경제성장 전략의 모색이 없으면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국경제는 그 동안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 핵심적인 기술혁신 등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현재 일본의 우월적 지위 선점과 중국의 추격과의 사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

### □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적 경제중심지로서 동북아시아를 예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하여, 21세기 새로운 성장산업인 지식기반산업과 고부가가치 물류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
-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지경학적 비교우위를 활용한 국가경영전략으로서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지역의 물동량 선점과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

### □ 따라서 세계적 도시체계의 형성에 따른 도시들 간의 기능연계 및 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은 서울시로 하여금 21세기 새로운 신성장 패러다임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여 온 서울은 압축된 고도성장과정의 결과로 다양한 도시문제들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음.

- 문화, 생태, 복지가 어우러지고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성장역량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효과적인 실현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본 고에서는 동북아시대를 맞아 새로이 요구되는 서울의 역할과 비전을 검토하고, 아울러 그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지역의 신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함

## II. 동북아시대 서울의 새로운 역할 모색

### 1. 동북아 경제중심에서 서울의 중요성

#### 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배경

□ 신정부 출범과 함께 「동북아경제중심」의 실현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 청와대 정책실장 하에 12대 국정과제 Task Force 중 하나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위원장 장관급)가 출범
- 초기 「동북아중심국가」에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바뀐 후 또다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명칭이 변경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의 등장배경

- 동북아 비즈니스 경제권 대두 : 공식적인 경제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점차 한·중·일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통합시장으로서 '동북아 비즈니스권'이 형성
- 중국경제의 부상 : 중국이 풍부한 인적자원과 광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대두되어 한국경제에는 위협이자 기회요인으로 작용
-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 한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며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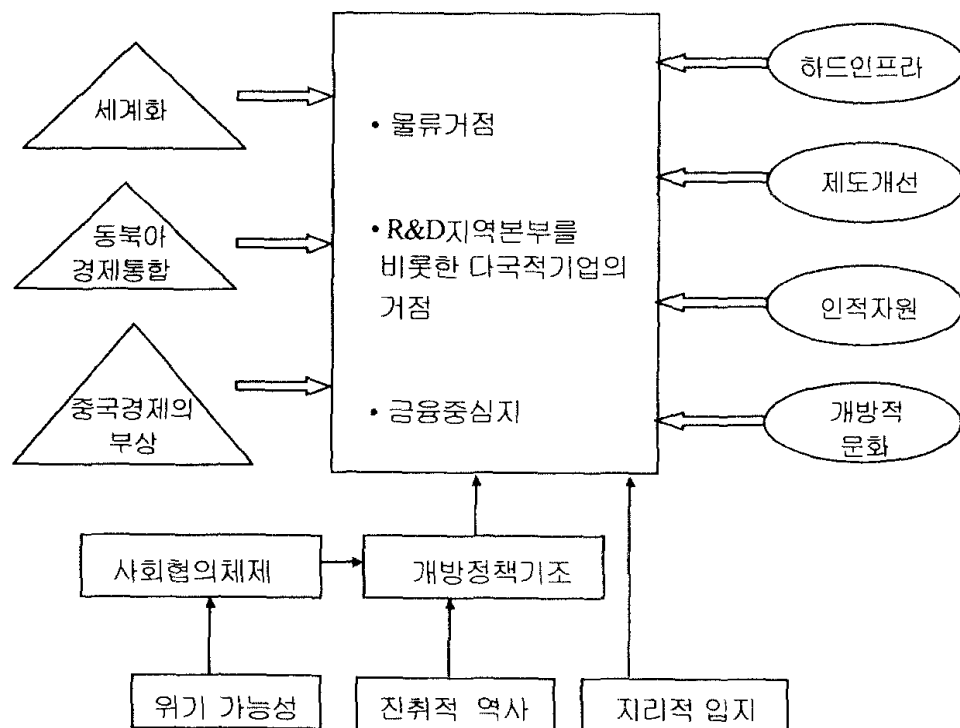
□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일본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 거점을 추구

- 기존 한국경제의 '수출입국전략'을 대신하여, 우리 국토와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경제적 기회까지도 이용해 세계적 기업, 자본, 기술 및 전문인력을 흡입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자는 전략임



##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

- 동북아 물류중심지 육성은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개발하여 국제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고 물류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임
- 기업 및 금융활동의 중심지는 동북아지역의 제조업 등 제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웃 나라의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경제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자는 것임
- 특히 외국인에 대한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내에서 선진국 수준의 지원 제도를 운영함



자료 : 이창재, 2003, 동북아 경제중심과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  
대전지역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포럼자료집, p. 9.

<그림 1>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 나. 동북아 경제중심에서 서울의 중요성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전략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금융중심의 동북아 비즈니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임

- 금융이 국제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동북아 금융중심지가 되지 않고는 한국이 진정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이 될 수 없을 것임
- 경제중심지는 인접국가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및 재화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금융 중심지의 역할이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경제허브의 역할을 하는 도시(런던, 뉴욕, 홍콩, 싱가포르, 암스테르담)도 금융 중심지라는 공통적 특성을 보임
- 따라서 동북아 경제중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국제금융거점(혹은 센터)이 담당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금융 및 경제중심지로서 서울의 위상정립이 중요함

□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국제수준의 기업경영 및 생활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제도의 선진화와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야 함
-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국제경쟁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상공회의소의 CEO를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 설문조사(2002) 결과, 서울은 동경, 싱가포르, 홍콩 및 상해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하며, William M. Mercer사의 세계도시 삶의 질 평가(2002)에서도 서울은 94위를 나타냄

□ 따라서 동북아와 세계적인 도시체계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노력이 요구됨

- 서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우선 동북아 경제중심의 추진이 바로 '선택과 집중'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중추기능의 중심지에서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함

- 특히 세계화과정 속에서 변천되는 세계도시체계와 동북아 경제권역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2. 서울의 역량분석

### 가. 글로벌 경쟁 환경변화

#### ☐ 세계경제의 블록화 가속 및 지식산업의 경쟁심화

- 개방화·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금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금융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 선점을 위한 아시아 도시간 경쟁도 심화됨
- 글로벌 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이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 고부가가치 도시형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

#### ☐ 산업의 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에 대한 수요증대

- 도시내 다양한 산업간의 유기적 관련성 증대
- 환경과 산업발전간 지속 가능한 개발수요의 일반화 : 쾌적한 자연환경·도시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의 지속적 증가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미치는 각종 환경관련규제 강화
- 지식의 중심지로 혁신과 창업이 일상화되고 신제품·신기술 수요증가에 대응한 연구개발(R&D) 수요 증가

#### ☐ 세계화·지방화와 지열한 도시간 경쟁

-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필요성 증대

- 자본거래 자유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제적인 자본이동 활발 :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의 본격적 시행에 비추어 서울은 인구 17억명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공략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함
- 기업구조의 임시·탄력적인 변화로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 여성, 중·장년층 등 유흥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공급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선진형 노사관계 확립 등이 필요함

#### 나. 서울의 역량분석

- 서울의 경제적 여건은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옴
  - 서울은 국내총생산의 20%이상을 담당하며, 특히 은행예금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국제도시임

<표 1> 중추기능의 서울 집중, 2002년 현재

구 분	국내총생산 (10억원)	사업체수 (개소)	은행예금 (10억원)	내국세 (10억원)	의료기관 (개소)	자동차수 (천대)	대학교 (개소)
전 국	503,745	3,013,417	474,248	70,107	42,082	13,653	174
서 울	103,307	719,536	244,045	32,716	10,749	2,656	39
집중도(%)	21.70	23.88	51.46	46.67	27.59	19.45	22.41

- 우리나라 대도시간 도시기반역량의 비교에서도, 서울시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탁월한 기반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경제력과 투자환경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며, 학습역량도 상당히 높음

<표 2> 대도시 기반역량 비교

구분	투자역량				학습역량				물적역량				사회통합관리역량			
	경제력		투자환경		지적자원		학습환경		물적자원		생활환경		사회통합자원		통합관리환경	
	91	95	91	95	91	95	91	95	91	95	91	95	91	95	91	95
서울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주 : ●● 매우양호, ● 양호, ○ 취약, ○○ 매우취약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21세기 선진국토를 향한 정책과제, 1998

□ 동북아 경제권역의 발전과 함께, 권역내 경제거점 선점을 위한 도시들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음

- 이들 도시들간의 경영환경 비교에 따르면,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상해 등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표 3> 경영환경 비교

구분	홍콩	싱가포르	상해	한국(서울)
경제활동의 자유도	◎	◎	×	△
기업활동의 규제	◎	○	×	△
세제 및 인센티브	◎	◎	△	△
인적자원	○	◎	○	○
임금 및 노사관계	○	◎	○	×
거시경제·정치적 환경	△	△	◎	○

주 : ◎ 매우 양호, ○ 양호, △ 보통, × 취약

자료 : 경제사회연구회,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연구 WORKSHOP 결과보고서, 2003.

- 도시간의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는 바로 도시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임. 생활환경의 비교 결과, 서울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교육환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면에서 생활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표 4〉 생활환경 비교

구 분	홍콩	싱가포르	상해	한국(서울)
주거·생활비	×	△	△	△
교육환경	◎	◎	△	△
의료서비스	◎	◎	×	△
위락시설·삶의 질	◎	◎	×	△

주 : ◎ 매우 양호, ○ 양호, △ 보통, × 취약

자료 : 경제사회연구회,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연구 WORKSHOP 결과 보고서, 2003

- 서울이 동북아시대 실현에 비추어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서울의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동안 형성되어 온 서울의 역량에 기반해야 함
- 동북아시대 서울이 갖고 있는 성장역량에 대한 객관적이 평가는 SWOT분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음

〈표 5〉 서울시 역량분석

강 점(Strength)	기회요인(Opport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추관리기능의 집적</li> <li>· 고급인력 및 기술의 집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li> <li>·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에 위치</li> <li>· 정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 도래</li> </ul>
약 점(Weakness)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경쟁력 미흡</li> <li>· 서울 고유의 정체성 미흡</li> <li>· 신규 개발가능지 고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집중 심화</li> <li>· 지역간/계층간 격차심화</li> <li>· 행정수도이전 공론화</li> </ul>

-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각 경제블록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한 국가의 배후에는 경쟁우위를 지닌 우수 세계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경제거점의 실현은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정립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됨
-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정보화 및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라는 기회요인에 부응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풍부한 중추관리기능의 집중과 고급인력 및 기술 자원을 레버리지(leverage)할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 3. 서울의 새로운 역할

#### 가. 동북아 경제거점도시 역할

☐ 최근의 정치·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대응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세계도시를 도외시하고서 전략의 효과나 성공을 상상하기 어려움
- 실제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동경,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다른 많은 세계도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경제블록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였다는 점은 그 중심국가 배후에 경쟁우위를 지닌 우수 세계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함

☐ 결국,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성이나 효과성 여부는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

☐ 정보·통신·지식산업의 비중이 증대된 국제적 네트워크속에서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기능

☐ 동북아 중심도시 추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우선 서울의 지정학적 여건이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오랜 역사와 경험을 통해 축적해 온 역량에 기반하는 것도 중요함

- 이러한 제반 여건을 염두에 둘 때,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은 동북아 중심도시의 탄생 여부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핵심에 세계도시 서울이 위치하고 있음

## 나.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 역할

□ 디지털 경쟁환경 속에서 서울은 새로운 지식·가치의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함

□ 21세기 지역성장에 부합한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 기존의 서울 산업구조는 그동안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독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함
- 서울의 정체성과 성장역량을 담아내는 전략산업의 발굴 및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시급
- 금융, 대기업 본사, 다국적 기업, 외국 우수기업 등을 유치하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의 발전 모색
- 외국인 투자여건과 생활환경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

□ 새로운 「서울형 신산업」의 창출

- 최신의 정보·기술·문화가 결합한 21세기형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미래 핵심인재육성의 거점도시 역할

- 새로운 지식 및 혁신 창출을 담당하는 원동력인 핵심인력 육성거점
- 지식자산의 산업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제고
- 지식 창출 및 교류를 위한 거점화 추구
- 산·학·연 개방형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 III. 동북아시대 서울의 비전 및 실현방안

#### 1. 동북아시대 서울의 비전(안)

##### 글로벌 경쟁적인 세계도시 - 서울

##### □ 생태·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서의 서울

- 국제업무 중심지와 동북아 국제금융 거점 도시 등 국제적 경제활동의 중심지 조성
- 경제활동의 선도적 역할과 정치·문화 활동의 보조적 역할간 연계를 통해 서울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 실현

##### □ 국가산업혁신의 중심이자 유연한 경제활동 중심지로서 서울

-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 대내외 지역간 산업 및 혁신 네트워크 강화
- 지역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 □ 기업·생활하기 좋은 도시로서 서울

- 생산활동 및 기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의 확충
- 외국기업을 위한 투자환경 및 거주환경의 개선

#### 2. 기본방향

##### 가.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서 세계도시 위상 강화

- 세계도시화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도시가 상호 연계된 기업들의 집적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거대 경제공간으로 성장하는 과정

□ 서울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내경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구해야 함

- 도시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를 제고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
- 서울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 독자적인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구상의 추진<sup>1)</sup>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발전에 기반한 싱가포르 전략에서 예시되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수도권은 긴밀한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사 등의 우수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것임
- 현재의 세계화 및 지역화 추세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선도적 글로벌 도시로의 부상을 위한 경쟁우위 영역과 경쟁자산의 식별
  - 제조업/서비스업에서 신성장 잠재력을 견인하기 위한 종합 전략
  - 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제환경 창출과 선택적 인센티브의 다각적 활용
  - 국제적 분업과 가치사슬 상의 연계에 기반한 해외도시 협력화 방안

#### 나. 동북아 금융·지식산업 거점도시 육성

□ 국제금융거점은 다양한 편익을 창출

- 첨단금융기법과 노하우를 접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증대된 투자재원이 경제성장 유발
- 취업구조가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변화
- 투자의 세계적 다변화를 통해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 감소

1) 정병순, 2003, 글로벌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전략, 서울경제브리프, 제5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금융부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무, 회계, 경영,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락, 문화, 교육, 관광 등에 대한 수요를 증대

□ 동북아 금융거점도시를 위한 국가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쟁력은 매우 높음

- 대외적으로는 런던, 뉴욕과 같은 국제적 금융중심지는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고, 동북아지역의 금융서비스 수요증가에 비해 국제금융중심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함
- 대내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막대한 금융폴<sup>2)</sup>, 지속적인 금융개혁 그리고 2시간 30분의 비행거리 내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무려 43개(인구 7억의 배후시장)나 포진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심장부 위치가 서울의 경쟁력에 기여

□ 이러한 추세는 서울시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서울시의 당면과제로서 유수의 대형 외국 금융기관을 추가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식기반산업, 특히 생산자서비스 활동의 제고를 위해 서울시는 기업·산업환경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하는 노력 필요

- 정보·지식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서울 서비스산업의 경쟁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경우 지식·기술 집약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산업환경의 변화가 특히 심함. 따라서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서울시·민간 상호간 해당 산업분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급속한 변화에 탄력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 매킨지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자산규모는 1조6000억 달러로 일본(23조달러)에는 뒤지지만, 우리보다보다 경제규모가 큰 중국(1조 7000억달러)과 비슷함(시장개발연구원, 2003)

#### 다. 친기업·친시민의 문화환경도시 육성

- 서울의 기업환경 경쟁력은 세계 1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영환경은 인근 4개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도시의 매력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다국적 기업본사수도 아시아에서 6위, 국제회의 개최건수도 24위를 기록하는 등 낮은 국제적 인지도를 보여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이 매우 취약한 실정
- 서울시가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 강화, 문화 및 환경인프라 개선 등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시책임

### 3. 정책방안

#### 가. 금융·지식산업의 동북아 허브 전략

-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비추어, 서울은 금융·지식산업 동북아 허브추진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함
-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전략에 대한 상세한 토론은 본 고의 논의를 벗어나지만(본 포럼의 제2주제 발표 참조),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 CEO를 대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시의 전략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음<sup>3)</sup>
  - 외국계 금융기관 CEO가 지적한 선결과제중 경제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임. 즉 M&A와 구조조정이 수시로 요구되는 금융부문에서 노사관계의 경직성은 투자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임<sup>4)</sup>
  - 그 뒤를 외국계 은행지점에 대한 대출규제가 지적되었고, 외환관리의 자유화와 정부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으로 나타남
  - 비경제부문에서의 선결과제는 단연코 낮은 영어소통 수준이 지적됨

3) KOTRA 외국인투자센터는 지난 4-5월중 국내 외국계 금융기관 CEO 1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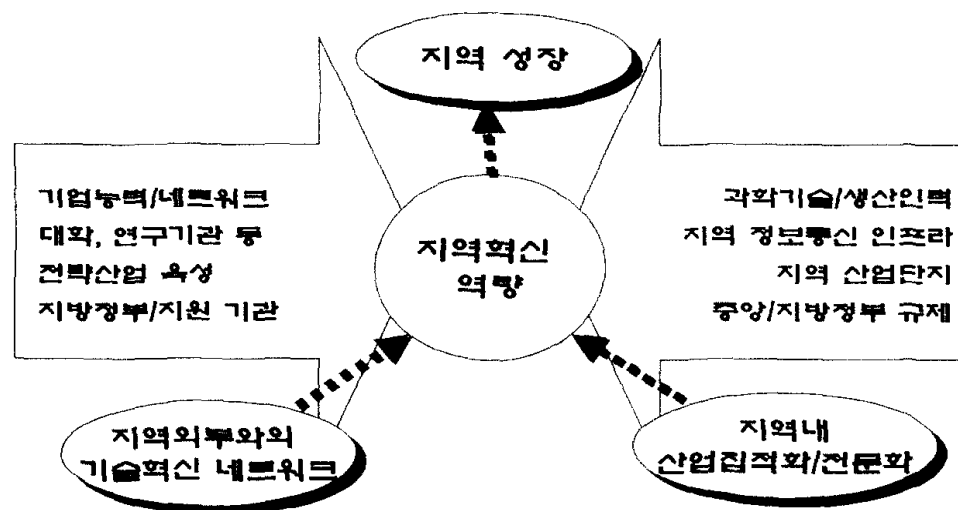
4) 최근 조흥은행의 파업사태의 해결결과에 대해 추가폭락으로 대별되는 시장의 반란은 바로 금융부문의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외국자본의 시각이 뚜렷이 드러난 사건으로 생각됨

- 서울시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들과 다국적 기업 아태지역 본부 및 국제금융기구의 유치 노력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추진되어야 함

#### 나. 지역 혁신역량 강화

##### □ 서울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

- 역내 경쟁우위 자원인 지식창출을 바탕으로 한 역내산업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산학연 연계네트워크를 보다 강화
-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 강화를 위해 “서울기업포럼”(가칭)을 창립, 상호간의 정기적 교류 활성화 유도
- 각 혁신 주체들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적 활용이 필요



<그림 2> 서울지역 혁신역량의 제고

#### □ 지역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

- 기술과 지식의 경쟁력이 원천이 되며,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의 역량요소를 강화하는 혁신전략
- 혁신주도형 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한 지식자산의 허브화(Hub)
-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역내 산업구조조정/재배치를 통한 산업적 요소를 통합하거나 연계·활용을 추진
-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지식창출 메카니즘 구축 필요

#### □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 한-중-일-미-유럽을 잇는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서울의 대표적 전략산업이 미래 핵심기술을 주도 할 수 있는 관련인프라 구축
  - “서울 R&D센터”(가칭) 설립이 필요
  - 특히 글로벌 협력적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DB 구축, 기술 아이디어 제공 및 상품화 시도
- 기술혁신을 장려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 역내 산업의 집적화 및 전문화 촉진

- 역내 산업집적화를 위해서는 지식창출을 바탕으로 한 벤처 IT산업의 집적이 필요
- 서울은 지식창출의 핵심인 인재풀(Pool)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우수하여 IT산업의 집적지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 기존 산업단지의 지식과 정보 집약을 추진, 전략산업과 주력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산업 활성화지구로 특화 시킬 필요가 있음

#### □ 역내 전략산업간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 고부가가치 지식집약, 정보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간의 자원, 정보, 마케팅 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가 필요
- 특히 의류, 섬유, 디자인의 비중이 높은 전략/주력산업을 감안, 연구소·대학 등의 지원기관이 네트워크를 통한 Brand와 Design 개발 및 육성에 초점
- 또한 Brand와 Design은 21세기 핵심역량의 키워드로써 의류와 섬유를 지식 기반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 요소
- 전략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야 함. 이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영역에 대한 개발과 아이디어의 공유를 위한 포럼, 교류회 등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 권역별 산업 발전계획을 각자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서울 산업의 종합적 발전계획 측면에서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 및 연계성의 도모가 필요

#### □ 역내 전략산업의 효과적 지원제도 구축

- 자율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설립이 필요
  - 특히 RDA는 유럽 및 북미에서 활성화,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 초점을 둔 민관 파트너십으로 조직화
-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자치단체는 간접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원리는 모든 정보와 역량의 흐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이게 되며, 이는 각 부문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임

#### 다. 도시정체성 확보와 도시마케팅

□ 급속한 성장위주의 개발과정에서, 서울만의 독자적인 이미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서 주민생활과 나아가 기업활동에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매력적인 서울의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 지역사회 통합 등을 이루려는 도시문화 전략이 요구됨
- 그러한 전략으로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은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재구축하고, 관광객과 외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자치경영의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도시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임

□ 다양한 도시마케팅 전략을 통한 서울의 대외 이미지 제고

-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 컨셉을 선정하여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지속·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대표 이미지 브랜드전략
- 지역의 고유성과 이미지를 반영한 문화축제와 이벤트 상품 개발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이벤트 브랜드 전략
- 문화예술지구, 문화지구, 관광특구, 문화의 거리 등 면적인 지구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관광지구 브랜드 전략

#### 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략적 대응 모색

□ 참여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의 이전은 장래 서울의 지역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수도권의 집중완화와 중추관리기능의 분산이 점차 국정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
-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기능의 분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 정보 및 중추기능의 서울로의 집적은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시장질서에 의한 결과

-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체가 대도시임을 인정할 때, 무리한 인위적인 기능의 분산보다는 대도시 경쟁력의 유지·제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서비스부문 역시 개방되고 있으므로 그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집적경제를 창출해야 하는 시의성도 있음
- 기업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복합적인 기능제고는 기업·자본유입의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것임

□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사례에 대한 검토, 특히 추진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는 장차 행정수도 및 중추기능의 분산에 대응한 서울시의 전략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음

- 독일의 천도과정
  - 수도의 선정과 관련한 격렬한 논쟁은 양보와 타협의 과정
  - 타협의 결과는 본과 베를린 사이의 정치행정 기능에 있어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본을 '연방도시'(Bundesstadt)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한 것
  - 베를린-본 조약은 지금까지의 연방 수도인 본의 이해를 감안한 타협안
  - 이러한 배려에는 천도 이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사무실이 남아돌면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 본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를 최대한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소극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만, 수도기능을 두 도시가 분담토록 하는 적극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
  - 천도의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취업인구의 대이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본의 공동화를 막는 동시에, 베를린의 과대 과밀을 처음부터 막아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음
  - 최근 본은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음
- 행정수도와 국가중추기관의 이전은 그동안의 지역불균등발전의 심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대응이기도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의 논란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점이 있음
  - 서울은 행정수도와 중추기능의 분산에 대응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그 기반은 바로 다가올 동북아시대 경제거점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실행시책의 마련이라고 봄

## IV. 결 론

-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경제간 경쟁 심화와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은 서울의 역할 및 비전확립에 새로운 환경을 부여함
- 세계도시체계의 형성에 따른 도시간의 경쟁속에서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함
- 그동안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한 대표적인 국제도시인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경쟁도시에 비해 기업 및 투자환경, 비즈니스 환경이 미흡한 실정임
- 동북아 경제거점 도시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세계경제내에서 세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동북아 금융·지식산업 거점도시로 육성되어야 함
  - 세계도시로의 위상강화에는 어메니티와 사회적 자본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지식산업 혁신체제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중요
  - 동북아 금융 및 지식산업 거점을 위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환경의 조성과 지역내 혁신역량의 강화가 요구됨
- 참여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중추관리기능의 분산정책은 서울의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다 적극적인 서울시의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사례연구에 기반한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동북아시대 서울의 비전 및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

빈 면

제2주제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자

이 재 용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빈 면

## 1. 동북아 금융허브의 논의배경

작년초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한 후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 세미나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당초에는 이런 주장이 생소하고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논의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서울 파이낸스 포럼 및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자는 연구를 발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국내 외국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금융허브(Financial Hub)추진계획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①동북아 금융허브의 논의배경이 무엇인가, ②금융허브의 전제조건은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며 세계주요 국제금융 중심지는 어떻게 이를 이룩했는가를 살펴보고, ③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④그리고 서울을 새로운 동북아 지역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해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현재 한국의 GDP규모는 세계의 13번째이며 제조업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제조업분야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쟁력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일본의 기술 및 자본 사이에서 넛크래커(Nutcracker)의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 한국은 향후 5~10년 후에 무엇을 생산해서 중국과 경쟁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는 이미 지식기반 경제를 바탕으로 IT, BT 등 첨단산업과 물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같이 치열한 국가간 경쟁 속에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성장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자는 국가발전 비전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서 제시된 것이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EU, NAFTA와 함께 이미 세계 3대교역권의 하나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 GDP의 20%를 생산하고 세계물

동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경제규모와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물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中心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 공항 등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물류 중심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와 아울러서 이 지역 금융수요의 획기적인 증대는 지역금융허브의 출현을 요구한다. 실제로 동북아의 물류중심, 금융허브, 그리고 비즈니스 거점화 등은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역내 교역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중·일 3국간의 교역규모는 지난 1990년 962억 달러에서 2001년 3,296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3.4배로 확대되었다. 동북아지역은 특히 나라별로 산업구조가 상당히 달라 비교우위에 입각한 효율적 국제분업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중·일 3국 경제가 이미 상당히 통합되고 있으며 앞으로 동북아 경제의 통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증가추세는 동북아의 높은 성장잠재력, 역내 국가들의 투자여건 개선노력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은 경제규모 뿐 아니라 역내 교역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금융수요도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금융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내 금융중심지 구축 노력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취약한 금융시스템과 미성숙한 자본시장으로 인해 이 지역 국가의 높은 저축률로 형성된 자금이 역내에서 원활하게 투자에 중개되지 못한다. 따라서 구미 선진금융기관에 예치된 후 그들에 의해서 금융중개되어 다시 아시아로 환류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 또한 동아시아 차입자들은 단기외화차입에 의해 조달된 자금을 자국통화표시 장기투자로 운용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의 「기간」 및 「통화」 구조가 이중으로 불일치(mismatch)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1997~1998년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역내 금융 및 자본시장 등 금융중심지가 없었던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대해왔다. 현재 동아시아 국

가들의 외환보유액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중국,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 등 5개국의 외환보유액은 2003년 3월말 현재 총 8,055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과다한 외환보유액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높은 보유비용이 수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은 환투기 공격을 차단하고 자국통화 가치를 방어해서 외환위기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 지역에 금융허브가 생기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중개 기능이 발달된다면, 외환·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예비적 동기의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보유비용이 절감되고 역외로 흘러나가는 금융중개 수익도 회수할 수 있다.

주요국의 외환보유 현황(표 1)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이 발달된 미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은 거대한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현황\*

단위:10억 달러

일본	496.2	싱가포르	83.5
중국	316.0	미국	79.4
대만	168.6	인도	74.8
홍콩	113.6	프랑스	60.1
독일	89.9	스위스	61.6

\* 2003년 3월말 현재

자료 : 한국은행, 「한은정보」2003년 5월호

그러나 그들은 자국 내에 선진금융기관과 발달된 금융시장을 갖고 있으므로 외환위기를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금융중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가 동아시아 역내에 발달된 선진금융기관 및 금융중심지를 확보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또한 장기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역내 저축이 역내에서 중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동북아 금융허브가 발달되어야 한다.



## 2. 금융 선진화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조건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에서는 국내 주요 도시에 거대한 축구경기장을 짓는 등 하드웨어를 마련하는데 거국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 이와 아울러서 상당한 소프트웨어와 노하우를 전수받고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IT기술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허브를 건설하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소프트웨어, 즉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다국적 기업 및 세계 유수의 거대 금융기관 등 외국 인투자와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역사적으로 선진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킨 국가들은 일찍이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오늘날 세계의 중심국가, 즉 주요 선진국이 되었다. 이들은 또한 외국 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금융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들은 금융세계화의 혜택을 누렸을 뿐 아니라 금융세계화를 촉진하고 세계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했다.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예컨대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하고 금융세계화에 기여함으로써 세계의 주요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드는 것은 21세기 한국의 발전전략이며 생존전략이다.

선진금융시스템은 무엇인가? 선진금융시스템(a good and well-functioning financial system)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융여건이 갖추어지고 그 속에서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들이 건전한 금융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환경 중에는 건전한 재정제도와 화폐가치의 대내외 안정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이 국내 금융제도를 건전하게 규제 감독하며 국제금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금융환경 속에서 국내금융, 국제금융 또는 국내외 금융활동에 특화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발달되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직접금융, 즉 증권시장의 발달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독립적인 사법제도, 명확하게 규정된 사유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지도층의 금융에 대한 이해 등이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선진금융시스템은 국내 자본조달을 원활히 해서 경제발전과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금융세계화의 관점에서 선진금융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경제성장 전망을 개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한다. 문제는 외국인투자의 유치이다. 외국인투자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낙후된 금융시스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내의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못하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면서 세계의 중심국으로 발전해왔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이 선진금융시스템을 초래했는지 아니면 선진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 선진경제를 이룩했는지는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자는 실물 경제의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이며 후자는 금융시스템의 발달이 실물경제를 선진화했다는 논리이다. 이들 중에 어느 주장이 더 옳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취약한 금융시스템은 내자조달이 원활치 못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낙후된 금융시스템은 해외투자 및 외국 자본의 유치도 어려우며 금융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거나 국제금융의 접근도 제한된다.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갖는 국가가 국제금융센터나 지역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주요 국제금융 중심지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온 런던, 뉴욕, 암스텔담 등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세계의 주요 금융중심지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현했는가? 지난 4세기에 걸쳐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은 순차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금융세계화에 기여하고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다. 그 결과 암스텔담, 런던, 뉴욕 등은 주요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해왔다. 특히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이지만 17세기 초부터 선진금융시스템을 이룩하여 18세기까지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누렸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었다. 영국도 네덜란드에 이어서 18세기 초에 금융발전을 이룩하고 산업혁명을 거쳐서 20세기 초까지 세계의 제국을 이룩했다. 18세기 중반 이후 런던은 암스텔담으로부터 금융자본과 금융기법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로부터 자

본을 대규모로 유치했다. 이에 따라 런던과 암스텔담은 동북구(Northeastern Europe)의 금융센터로 금융통합 및 글로벌리제이션을 촉진해서 양국의 번영에 초석이 되었다. 미국은 18세기말에 비로서 선진금융시스템을 개발했다. 당시에 미국은 인구가 적은 신흥시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미국은 세계의 정치, 경제를 지배하는 패권국가로 되었다. 이들 주요국들이 금융선진화를 통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 신금융상품 개발, 새로운 시장 출현 등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또는 금융개혁(Financial Revolution)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금융혁신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에 비해서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었고 경제발전과 금융세계화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 금융규제가 금융선진화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9세기말 이후 급속도로 근대화해 성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된 것은 명치유신 이후 과감한 금융혁신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870년까지는 빈곤하고 고립된 국가였으나 그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신흥시장으로서 20세기 후반에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금융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선진금융시스템은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외국자본이 집중 유입되어 국제금융센터가 이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 선진금융시스템의 요건인 건전한 정부재정, 안정적인 통화, 건전한 금융기관, 효율적인 중앙은행, 발달된 증권시장 그리고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17세기, 18세기에 선진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의 금융을 지배한 나라는 네덜란드였으며 그 후 영국이 가세했다. 이에 따라 암스텔담과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국제물류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우리는 규모는 작지만 세계의 금융,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끊임없이 번영해온 네덜란드에 주목해야 한다.

19세기에는 미국도 유치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던 신흥시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은 끊임없는 금융혁신을 통해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외국자본의 지속적인 투자대상이 되어왔다. 그보다 1세기 앞서서는 네덜란드와 유럽투자자들이 영국에 대해서 투자를 집중했다. 당시에는 영국이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신흥시장으로 부상했다. 신흥시장의 출현은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국제금융 중심지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다음은 동북아지역이 신흥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이 지역에 금융센터가 출현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오늘날 런던, 뉴욕 같은 세계 금융중심지 뿐 아니라 지역 금융중심지(regional financial center), 국제금융의 틈새시장, 역외 금융센터(offshore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등 다양한 국제금융시장이 출현하여 서로 보완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의 더블린, 미국의 델라웨어, 케이만 아일랜드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이룩해서 세계금융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성장할 기회는 적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들 중 누가 먼저 금융선진화를 이룩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단기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가 국내 금융선진화를 대체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흔히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이 장기간 국내에서 경제성장과 금융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진금융시스템을 이룩해야 한다. 결국 금융선진화 없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이룩하는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나 다름없다.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선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3.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과제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한국이 다국적기업들과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동북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명성을 얻어야 한다. 우선 한국은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시스템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보다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중국은 상해 푸둥지구에 집중투자해서 사회간접자본 같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강점이 있지만 은행 및 국영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나 경영투명성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의 금융허브 기능을 담당했던 홍콩 역시 중국경제의 일부로 동화되면서 그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통제 및 규제유지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에 상당한 제

약이 되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서 관료주의의 폐단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근래에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이 취약하며 금융개혁도 부진한 상황이다. 싱가포르의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부와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소규모 도시국가로 역외금융센터 이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기능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여타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고 지리적인 이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이 보는 한국의 투자환경은 홍콩, 싱가포르, 동경, 상하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지적하는 애로사항은 ①조세제도와 고율의 소득세 및 법인세, ②외환관리, ③전투적인 노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④이민정책과 까다로운 외국인 노동허가, ⑤그밖에 영어능력, 생활환경, 국가 이미지 등에서 열악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은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동경보다 열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노사관계 및 문화의 개방성 등은 조사대상 30개국(인구 2000만 명 이상)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평가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세계화 및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 특히 최근에 벌어진 조흥은행 노조의 민영화 반대 투쟁, 농민들의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반대 시위, 전교조의 연가투쟁, 화물연대, 철도노조의 파업 등은 동북아 금융허브, 물류중심, 비즈니스 중심 등의 비전과 현실 간에 심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외국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평화적이며 원칙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확립하는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국의 불안정한 노동문제가 다국적 기업 및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위협과 부담으로 인식되는 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제도도 금융허브로 부상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율이 너무 높다. 개인소득은 연간 8000만원이 넘으면 39.6%의 최고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도 1억원만 넘으면 29.7%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처럼 높은 한계세율은 우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높은 세율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고질적인 규제 의지를 암시하며 그만큼 기업 환경 및 시장경제를 위축시킨다. 또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각종 공제와 면세조항을 도입하게 한다. 세법은 복잡해지고 투명성을 잃으며 세무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다. 누진세율이 홍콩(20%), 싱가포르(28%)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외국기업 및 전문인력이 한국을 기피하게 한다. 따라서 세원을 확대하되 한계세율은 대폭 낮추어야 한다.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률시장은 금융허브를 지원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 국제금융거래가 필요로 하는 기법도 개발되지 않았다. 비록 여타 아시아 지역에 비해 사법부의 독립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외국인이 대규모 국제금융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홍콩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국내 법률시장과 법제도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당겨야 한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 법률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법률시장 개방은 국내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 법률사무소가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우리 정부의 규제 및 법률체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자본, 외국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 뿐 아니라 이들을 따라서 해외의 전문인력이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 이들이 국내에서 쾌적한 여건에서 업무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민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3D업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노동력 확보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 전문인력의 유치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금융허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평준화를 지향하는 국내 교육제도가 장기적으로 고급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민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전문인력에게는 영주권을 주어 수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4.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건설을 위한 경쟁은 올림픽경기의 유치경쟁과 같이 국가보다 도시 또는 지역간에 이루어진다.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오늘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경쟁력의 제고는 국가보다 오히려 지역이나 도시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산업과 cluster는 특정 도시나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경쟁은 국가간의 경쟁이라기보다 지역과 지역간, 또는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이다. 더구나 국제금융 중심지는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금융 인프라와 금융관련 고급인력 등 종합적 비즈니스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는 대도시의 중심부가 적합하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금융허브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간의 경쟁이라기보다 서울,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 등의 주요 도시간의 경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및 물류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입지 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에 대하여 각종 경제적 요인, 사회·정치적 요인, 인프라, 생활환경, 사업편의성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이 이들 경쟁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김포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국제금융 업무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역별 분산투자나 금융업무 역할 분담을 위한 지방도시의 금융센터 조성은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이룩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 10개 도시에 축구경기장을 분산 건설하는 등 2002 한·일 월드컵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할 수는 없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장 유망한 지역/도시를 선택해서 거국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입지를 결정할 때 비용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지가(地價), 혼잡, 과밀화 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서울에 대한 입지 수요가 큰 것은 그것을 상쇄하는 더 필수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기업 환경, 기술 인력, 근로자의 질, 첨단 IT기술의 집적, 문화·생활환경 등 외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그나마 동북아의 경쟁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세계의 주요 금융센터를 보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고 금융활동은 공간적으로 집적(cluster)현상을 보인다. 전문인력의 대면접촉과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공간적으로 집중한다. 또한 금융업무와 법률서비스, 회계, 정보통신, 교육기능이 금융서비스 cluster를 형성한다. 따라서 세계의 금융중심지는 경제수도의 도심 일부지역에 집적되는 경향이 있다. 세계 주요도시의 국제금융업무 지구는 도심내부 혹은 도심인근지역 활성화지역에 자리 잡는다. 예컨대 기존의 금융지구(Financial District)인 The City(런던)나 Wall Street(뉴욕)뿐 아니라 런던 West End의 St.James, 뉴욕 맨하탄의 Battery Park 등이 대표적인 신흥 국제 금융 업무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의 청계천 복원지역과 연계하여 광고일대를 국제금융업무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국제금융기구,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본부, 주요 외국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역은 이미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가 밀집해있으며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에 편리하고 쾌적한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금융허브의 최적지를 선정하여 집중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금융 중심지를 향한 비전은 일시적인 노력이나 구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되면 좋고 안 되어도 할 수 없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생존전략이다. 우리만이 이런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이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우리가 상하이나 도쿄에 비해 비교우위와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국제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해도 서둘러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시작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과 서울의 국제금융 중심지 육성계획” 2003.1.
- 엄태훈, “동북아 물류 Hub 구축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 2002. 10
- 전일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비전, 전망 그리고 전략”,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2003. 6. 20
- 최공필, “Regional Implications of Global Finance: Challenges for Growth and Stability in Asia”,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2003.6.20.
- AMCHAM, “Dynamic Korea, Hub of Asia”, March 13, 2002.
- The Economist, “Where the hedge funds hide”, April 19, 2003.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 Kim Kihwan, “Korea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Vision and Strategy”, May 14, 2003.
- Park Yoon-Shik, “Potential for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n Korea”, May 22, 2002.
- Porter, Michael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1990.
- Rousseau, Peter L. & Richard Sylla, “Financial System, Economic Growth, and Globalization”, NBER, October 15, 2001.
- Seoul Finance Forum, “Seoul as a Regional Financial Center of Asia, the Vision and Strategy for Korea’s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October 4, 2002.

제3주제

## 동북아 IT 거점도시 서울의 선택

신 창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실장

빈 면

## I. 『동북아 IT 거점도시 서울의 선택』 의의와 필요성

### 1. 경제환경의 변화

#### □ 경제의 지식기반화

- 정보화에 힘입어 20세기 후반 들어 세계경제는 소위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행
-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에 기반하여, 정보의 생산·배분·사용에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이 강하게 의존하는 경제로서, 기술과 정보의 생산·확산·사용이 경제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에 핵심을 이룸
- OECD 경제에서 GDP의 50% 이상이 지식기반경제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추정<sup>1)</sup>. 생산과 고용은 컴퓨터, 전자, 항공산업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경제의 지식기반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이 21세기 핵심 선도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IT산업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향후 IT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점유하는 규모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속도도 다른 성장산업보다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다음 <표 1>에서 보듯 과학기술부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도 IT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조 197억 달러에 이르고, 연평균 성장률도 11.5%나 될 것으로 전망함

1) OECD, 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lt;표 1&gt;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별 세계시장 규모 (단위:억불)

연도 분야	2002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성장률 (2005~2010)
IT	42,122	58,125	100,197	11.5%
BT	3,094	3,732	5,113	6.5%
NT	2,591	3,345	5,125	5.9%
ET	5,954	6,952	8,997	5.3%
계	53,761	72,154	119,432	10.6%

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을 바탕으로 재계산. IT산업을 광의로 해석하여 CT 산업을 포함. 2010년 자료는 2002~2005년 사이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계산 (KIST)

#### □ 국제경쟁의 심화와 각국의 IT산업 육성 전략 전개

- 세계경제가 개방화되고 WTO 등 자유무역체제 강화
- 산업과 무역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분업도 심화되어 NAFTA, EU, ASEAN 등 경제의 블록화 현상 가속화
- 결국 세계 각국은 이러한 세계경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국의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IT산업 육성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 한편 이들 선진국은 문화콘텐츠기술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업체 연합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제작, 저작권보호 솔루션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각국의 IT산업 육성전략 】

- 미국 : 인프라기술 최고수준 유지전략 (NITRD 보고서)
- 일본 : e-Japan전략 (IT 전략본부설치)
- 유럽 : e-Europe계획

## 2. 참여정부의 『동북아 IT 중심추진』 구상

### □ 의의

- 상기 경제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여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하나로 『동북아 경제중심추진』 구상 제시. 이의 추진방향 중 하나는 세계경제 중심지로서 동북아시아대 도래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임
-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IT 등 첨단산업을 지정하고, 『동북아 IT 중심 실현』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

### □ 내용

-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20Mbps) 구축
- 동북아 IT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세계표준을 선도

### □ 과제

- 『동북아 IT 중심추진 구상』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가?

## 3. 「동북아 IT 중심추진 구상」의 지렛대로서 「서울의 동북아 IT거점도시」 육성의 필요성

### □ 우리나라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서 서울 대도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

-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무국경경제(borderless economy)의 가속화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세계도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그 결과 세계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임
- 세계도시는 초국적 생산, 마케팅, 국제금융을 통제·관리하는 도시로서, 뉴욕·런던·동경이 이에 해당함.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집중하고, 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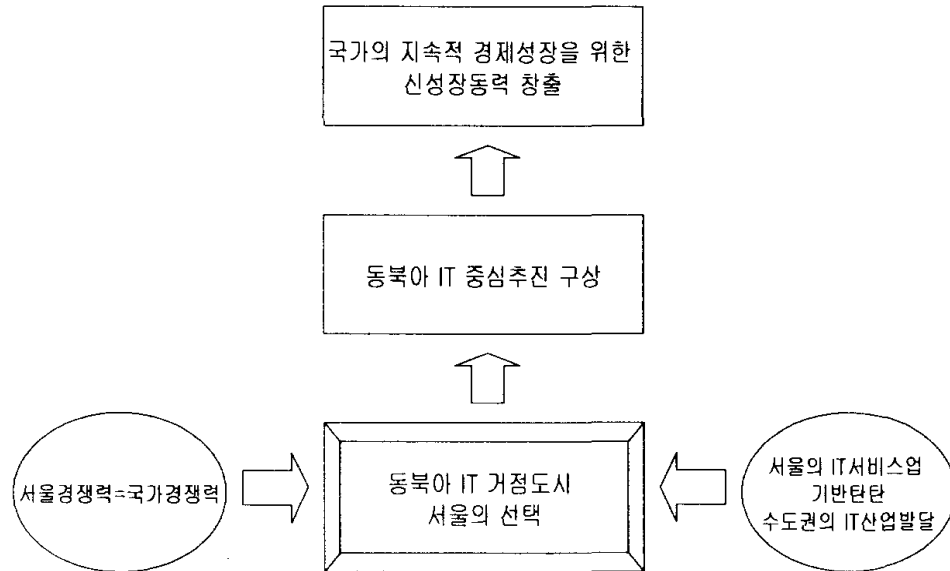
된 은행시설과 생산자서비스 기업들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경제가 이들 세계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집중됨

- 세계도시로 발달하지 못한 도시는 그만큼 세계경제 축에서 소외되게 되고, 결국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이 뒤쳐지게 됨
- 이에 1990년대 이후 국제적 추세 가운데 팔목할만한 것은 세계도시 체제의 상층을 차지하려는 대도시 정부들의 치열한 각축전, 세계도시를 향한 전략적 대응임. 실제로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동경,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다른 많은 세계도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경제블록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였다는 점은 그 중심국가 배후에 경쟁우위를 지닌 우수 세계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함
-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세계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서울을 세계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인 IT산업을 서울대도시에 육성하고 서울을 『동북아 IT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동북아 IT 중심추진 구상』의 실현성이나 효과성 여부는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과 직결됨. 이러한 기본방향 역시 세계도시에 관한 논의가 ‘국제분업 상 고차기능의 중심지’와 ‘국제적 네트워크의 결절지’ 등 두개의 개념틀을 근간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요컨대, 금융 및 물류와 더불어 『동북아 IT 중심추진 구상』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IT 거점도시』의 탄생 여부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핵심에 서울 대도시의 역할이 중요함

#### □ 『동북아 IT 거점도시』육성에 유리한 고부가가치의 IT서비스업 발달

- IT산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리적 집중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 경제구조의 변화에 중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
- 실제로 서울은 IT산업의 메카이며, 인큐베이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은 IT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더 큰 IT서비스업의 비중이 큼
- 수도권차원에서 볼 때, 경기도는 IT제조업이, 서울시는 IT서비스업이 발달함

따라서 서울의 IT서비스업과 더불어 경기도의 IT제조업간 역할분담을 통해 서울대도시가 『동북아 IT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지님



<그림 1> 『동북아 IT 거점도시 서울의 선택』의의와 필요성



## II. 서울 IT산업의 현황 및 잠재력

### 1. IT산업의 개념

-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의 총아로 떠오른 대표적인 고성장 신산업으로, 현재 서울 산업경제는 물론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응용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음
- IT산업은 크게 데이터 전송과 화면을 포함한 정보처리 및 통신기능, 물리적 과정의 통제나 물리적 현상의 기록·측정·조사에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IT제조업, 판매를 하는 IT도소매업,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정보처리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IT서비스업, 그리고 IT기반시설의 하나로서 전기통신업 등으로 구분됨.
- 초기에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여 IT제조업이 발전한 이후, 점차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으로의 급속한 산업적 전환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 및 통신 기술과의 지속적인 기술융합을 통해 E-business 영역이 새롭게 확대·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는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DB 정보 등 광범위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소비하는 콘텐츠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2. IT산업의 분류

- IT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KSIC)으로 다음과 같이 제조업과 통신업, 도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됨

분 류	내 용
IT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300)</li> <li>·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321)</li> <li>·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322)</li> <li>·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323)</li> </ul>
IT전기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업(642)</li> </ul>
IT 도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업(51891, 51893, 52514, 52631)</li> </ul>
IT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li> <li>·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li> <li>·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관리업(723)</li> <li>·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li> <li>·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729)</li> <li>· 전자상거래업(52811)</li> <li>· 콘텐츠산업(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8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li> </ul>

### 3. 서울 IT산업의 현황

#### 가. IT산업의 규모

- ☐ 2001년 현재 서울시 IT산업(정보통신산업)은 전체적으로 33,351개의 사업체에 379,055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산업의 4.6%(고용자수의 경우 9.8%)에 해당하는 산업규모임
- ☐ 이 가운데 IT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업)이 20,056개(228,364명)로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과 통산업체들은 각각 2,375개, 889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사업체 대비 종사자수는 서울시 평균 종사자수 5.3명의 약2배인 11.4명으로 타산업에 비해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비교적 짧은 시기에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 지역적으로 볼 때, 도심권역과 동남권역이 12,775개, 8,329개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집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남권과 동북권이 각각 6,015개, 4,092개를 나타내고 있음.
- ☐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60.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이들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이 도심권역의 중구·종로구와 동남권역의 강남구·서초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각각 강력한 집적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 그밖에 영등포구(2,085개)와 구로·금천구(1,624개), 그리고 용산, 성동, 송파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IT서비스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 ☐ IT도소매업(정보통신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30.1%를 차지함. 권역별 사업체를 보면, 종로·중구·용산구의 도심권이 3,832개 업체로 가장 많고, 강남·서초등의 동남권이 2,039개 업체로 다음임. 따라서 IT도소매업은 도심권이 동남권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음

- 반면 IT제조업(정보통신제조업)의 경우 전체 2,375개의 제조업체 가운데 45%에 달하는 기업이 서남권역, 특히 구로, 금천 등에 입지하고 있어서, 준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제조업 입지패턴과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서초와 강남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표 2> 서울 IT산업 현황(2001년)

(단위 : 개, 명)

구분		정보통신제조업		전기통신업		정보통신도소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소계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도심	종로	43	841	38	5,348	362	2,998	1,125	17,082	1,568	26,269
	중구	79	1,875	55	4,073	321	1,869	6,937	38,115	7,392	45,932
	용산	50	515	34	1,797	314	1,266	582	6,197	3,815	21,371
	소계	172	3,231	127	11,218	3,832	17,729	8,644	61,394	12,775	93,572
동북	성동	148	4,869	19	652	154	465	494	6,569	815	12,548
	광진	56	716	19	1,301	734	2,437	375	3,528	1,184	7,982
	용대문	38	289	17	375	209	536	316	1,660	580	2,862
	중랑	36	302	3	163	192	482	115	536	346	1,463
	성북	33	348	10	297	201	542	185	1,548	429	2,735
	강북	16	255	8	368	152	370	76	345	252	1,328
	도봉	12	360	10	390	117	392	52	373	191	1,535
	노원	27	370	6	282	153	374	109	660	295	1,666
	소계	366	7,529	92	3,818	1,912	5,573	1,722	15,219	4,092	32,139
서북	은평	18	260	5	197	160	413	112	699	295	1,569
	서대문	16	109	24	787	165	470	285	1,976	490	3,342
	마포	69	1,957	39	793	241	2,542	1,006	12,230	1,355	17,522
	소계	103	2,326	68	1,777	566	3,425	1,403	14,905	2,140	22,433
서남	양천	96	955	21	1,129	178	551	294	3,669	588	6,294
	강서	126	2,594	25	667	202	870	291	3,079	644	7,210
	구로	308	4,554	37	857	299	923	316	3,124	960	9,468
	금천	301	10,572	12	568	135	489	216	4,406	664	16,029
	영등포	162	7,766	56	1,699	507	4,636	1,360	26,342	2,066	40,443
	동작	35	842	23	1,847	146	443	230	3,854	436	6,986
	관악	52	688	25	1,012	213	562	348	3,137	638	5,399
	소계	1,079	27,971	199	7,779	1,682	8,468	3,055	47,601	6,015	91,819
동남	서초	231	4,831	127	4,808	882	6,612	1,609	24,377	2,819	40,628
	강남	255	7,134	219	8,998	740	10,402	2,943	54,729	4,157	81,263
	송파	128	2,299	35	1,004	282	1,620	512	8,764	957	13,687
	강동	41	848	22	743	165	546	168	1,375	396	3,514
	소계	655	15,112	403	15,553	2,069	19,182	5,232	89,245	8,329	139,092
전체		2,375	56,169	889	40,145	10,031	54,377	20,055	228,364	33,351	379,055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 나. IT산업의 지원시설<sup>2)</sup>

### 1) 대학 및 연구소, 응용 연구기관

#### □ 서울은 전국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1/4를 차지함<sup>3)</sup>

- 2001년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은 2천6백억 원으로 전국의 22.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업연구소가 77.6%, 대학연구소가 15.2%를 지출함.
-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3,659명으로 전국의 30.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학과 기업의 비중이 각각 43.1%, 52.3%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연구개발 조직은 전국의 7,324개의 24.6%인 7,324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민간기업연구소가 9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IT관련 서울소재 대학부설연구소의 대량 분포

- 전체 23개 대학에 90여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많은 연구소들이 중소기업 및 제조업을 지원하는 기술협력센터로서 활동하고 있음
-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이들 대학부설연구소들은 전자·정보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 생산 및 창업관련 입지지원시설

#### □ 하드웨어기반 제조업 중심의 다른 지역과 달리 소프트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는 산업적 특성상 생산과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제한적 수준을 나타냄.

- 이 가운데 일반산업단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국가공단)와 온수지방산업단지 등 2개에 불과함

2) 현황자료는 <부록>을 참조할 것

3 과학기술부, 2001년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 반면, 최근의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인 벤처창업시설은 73개, 그리고 창업보육 및 지원센터는 48개로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창업보육시설을 예외로 많은 지원시설이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 사업운영 주체 면에서 볼 때에 벤처집적시설은 준공공 및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창업보육시설 및 지원센터는 공공과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3) 마케팅·유통, 교육·훈련기관 지원시설

□ 서울시는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완제품을 전시함으로써 판로를 촉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이 여의도, 창동, 잠실 등에 있음.
  - 이와 함께 신속한 수송을 위한 복합화물터미널 등 4개의 물류센터, 인터넷을 통한 제품홍보와 전자상품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관이 구축되어 있음
  -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서울시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에 의한 다양한 마케팅 및 교육훈련 지원시설과 관련 지원사업이 있음
- ※ 그밖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송파구 소재)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과 소프트웨어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지원
-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양천구 소재)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제작지원,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활성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시행하고 있음

#### 4. 서울 IT산업의 성장 잠재력

##### □ 서울시 전산업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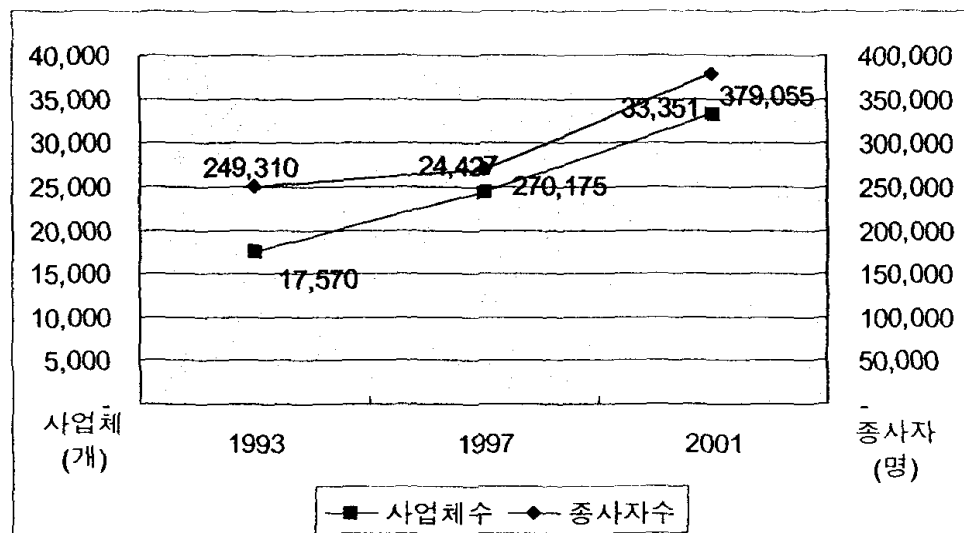
- 서울시 IT산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1993년 17,570개에서 1997년 24,427개 그리고 2001년 현재 33,351개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냄. 종사자수 기준으로 1993년 249,310명에서 1997년 270,175명, 2001년 379,055명으로 증가
- 서울시 전산업 대비 IT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업체수 기준으로 1993년 2.8%에서 1997년 3.5% 그리고 2001년 4.6%등으로 그 비중의 증가속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종사자수 기준 변화에서는 1993년 서울시대비 6.3%에서 2001년 9.8%로 큰 증가폭을 보임

<표 3> 서울시 IT산업의 규모 변화

(%: 전산업대비)

구분		1993년	1997년	2001년
IT 산업	사업체수	17,570 (2.8%)	24,427 (3.5%)	33,351 (4.6%)
	종사자수	249,310 (6.3%)	270,175 (7.2%)	379,055 (9.8%)
전산업	사업체수	624,841	692,616	725,569
	종사자수	3,974,457	3,758,459	3,876,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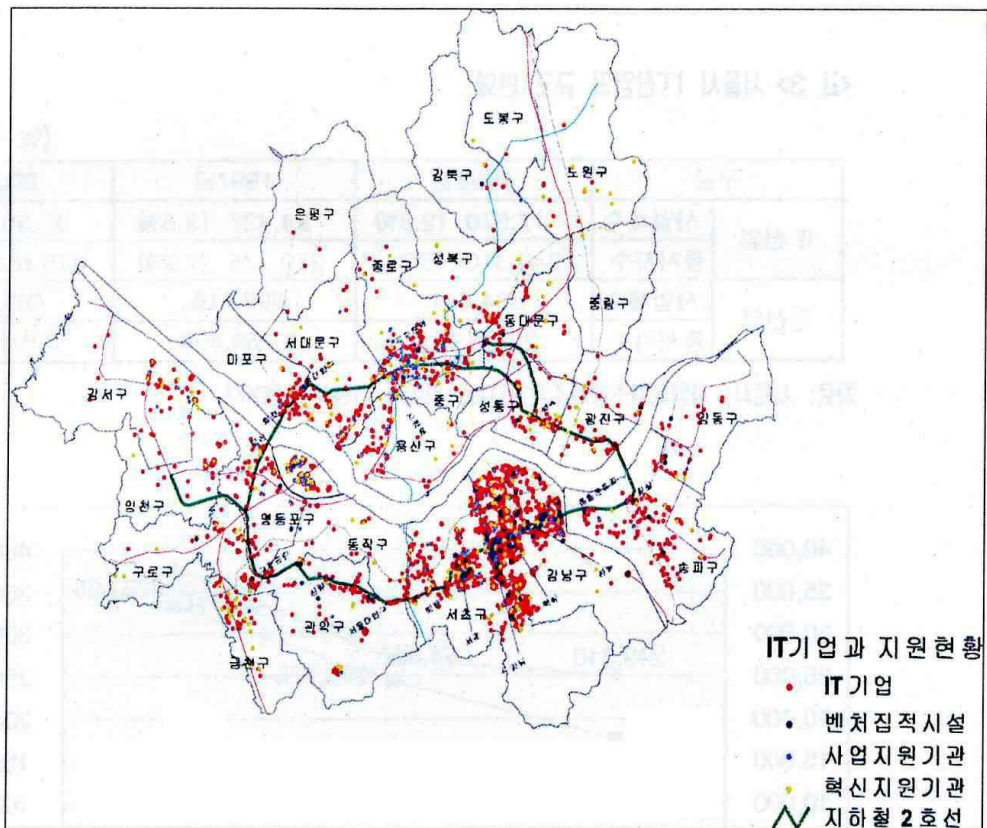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4, 1998, 2002



<그림 2> 서울시 IT산업의 규모변화

□ IT산업관련 지원시설이 풍부하여, IT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 수행 가능

- 대학 및 연구소, 응용 연구기관(연구개발 인력은 전국의 30.1% 차지) IT관련 서울소재 대학부설연구소의 대량 분포(전체 23개 대학에 90여개의 연구소)
- 생산 및 창업관련 입지지원시설(벤처창업시설은 73개, 그리고 창업보육 및 지원센터는 48개)
- 마케팅·유통, 교육·훈련기관 지원시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인터넷중소기업관이 구축,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
- 특히 IT산업체를 비롯하여 관련지원시설이 교통여건이 편리한 지하철 2호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음(<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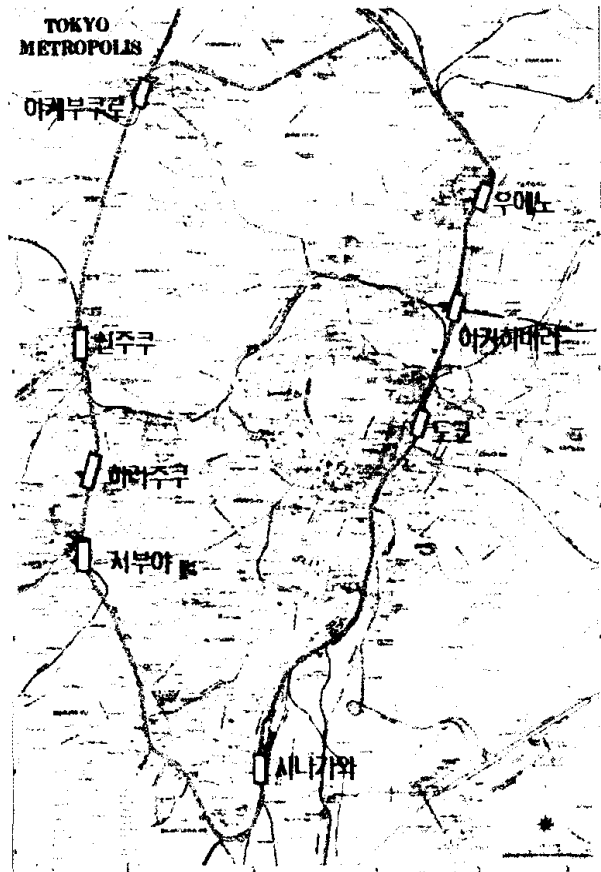
<그림 3> 서울 IT산업체와 관련지원시설 분포 현황

### III. 동경과 북경대도시의 IT산업 육성 동향

#### 1. 일본 사례: 동경 비트밸리와 이케부쿠로, 아키하바라

□ 동경의 IT산업은 도쿄역 인근 마루노우치, 아키하바라, 이케부쿠로, 시부야와 같이 <그림 4>의 JR야마노테선(山手線) 주변에 1980년대 이래 집적이 진행되어 옴. JR야마노테선은 서울의 2호선처럼 순환선임

□ 이러한 지역들에는 다양한 문화공간, 업무공간, 각종의 상업활동이 집적되어 있으며, 각 지역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IT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그림 4> 도쿄 야마노테선 주위 IT관련 산업 집적지역

□ 지역별 클러스터 형성 특성

지역	특성	개요
아키하바라, 신주쿠	소프트 IT 클러스터	세계적인 전자·전기 판매 중심지로서
마루노우치	콘텐츠 클러스터	도심업무지구로 콘텐츠 관련 기업의 집적
시부야	비트밸리	시부야를 중심으로 하여 아오야마, 아카사카를 포함한 약 14km의 지역
이케부쿠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일본 및 세계 애니메이션산업의 메카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클러스터
아카사카	영상산업클러스터	



### 가. 비트밸리

#### □ 입지

- 시부야를 중심으로 하여 아오야마, 아카사카를 포함한 약 14km<sup>2</sup>의 지역

#### □ 성격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인터넷, 콘텐츠 등 첨단문화기업 집적 지역임
- 시부야는 젊음과 유행의 거리임

#### □ 역사

- 오래된 지역이었으나 도큐플라자, 도큐백화점, 도큐문화회관 등이 건설되고, 1979년 도큐패션커뮤니티 빌딩이 건립되면서 변화가 형성
- 1980년대 초 : 세이부의 진출에 따라 패션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형성되었으며, 다양한 문화관련 시설이 입지함
- 1990년대 중반 : 네트워크 기업의 집적 시작(Digital Garage 등). 계속해서 아카사카에서 시부야에 이르는 지역에 네트워크벤처 중에 대표적인 선도기업이 입지함 (사이버에이전트, 키노트로프, e머큐리, DeNA, AOL, e삼성, MS 등)
- 1997년 : 시부야역전에 멀티미디어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QFRONT빌딩을 건설(완성은 1999년). 그러나, 아직까지는 네트워크나 시스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음
- 1999년 : 인터넷 비즈니스컨설팅 회사인 넷이어그룹의 고이케회장이 bitter valley구상을 처음 발표. 이후 bit valley로 개명됨. 이를 계기로 bit valley association을 창설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관계 있는 전문가들이 연구회나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 □ 도쿄 네트워크 기업의 집적 현황

- 비트밸리란 동경 시부야(澁谷) 주변의 인터넷 관련기업의 창업자를 중심으로 생겨난 네트워크 기업의 커뮤니티를 지칭

- 전체 약 1,300개 기업 중 60%가 도심 5구에, 약 40%는 미나토구, 시부야구에 집적
- 특히 도심5구 중에서도 아카사카, 아오야마, 하라쥬크, 시부야, 에비스 일대에 317개사가 집적
- 이를 일본판 실리콘 밸리라 부를 수 있음

#### □ 성공 요인

##### ① 도시환경적 특성

- 교통이 편리하고 변화한 상업업무지역임. 따라서, 소형의 사무실과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음식점, 카페, 문구점, 서점, 은행 등)가 집적됨

##### ② 저렴한 임대료

- 지가와 임대료가 저렴하게 유지되었음

##### ③ 풍부한 전문 기술인력

- 수많은 전문학원들이 입지함(요요기애니메이션학원, 루츠재즈아카데미, 일본 전자전문학교 등)

##### ④ 교류의 장을 형성

###### A. bit valley association (<http://www.bitvalley.org>)

- 1999.7 네트워크 비즈니스 관련자의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
- 월1회의 비트스타일(교류파티) 개최 및 메일링리스트
- 회원은 약 6,000명

###### B. 神宮前.org (<http://www.jingumae.org/>)

- 프리랜서 창작자들의 모임
- 1994년부터 시작됨
- 창업자에게 업무공간 제공 및 인큐베이션

- 무료로 서버공간 대여
- 보르텍스라는 파티를 부정기적으로 개최(매회 600 여명 참여)
- 하라쥬크 디지털 플랫폼 구상 : 벤처빌딩 성격

### C. Web Design Consortium

- 1997년 웹디자인 전문가 모임으로 시작됨
- 약 5,000명의 회원

### ⑤ 편리한 교통

- 도쿄의 부도심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JR야마노테선, 긴자선(銀座線), 한조몬선(半藏門線) 등 3개의 전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임

## 나. 이케부쿠로(池袋)

### □ 위치

- 도쿄의 환상선인 야마노테선의 주요 거점역인 이케부쿠로역 인근에 입지

### □ 성격

- 일본 및 세계 애니메이션산업의 메카임
- 세계 시장의 65%를 일본이 점유, 일본 애니메이션업체 300여개 중 91.3%가 도쿄에 집적, 도쿄 애니메이션 업체의 57.2%인 127개가 이케부쿠로역에서 출발하는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신주쿠에서 출발하는 세이부신주쿠선, 중앙선 연변에 집적
-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애니메이션 집적지

### □ 역사

- 도시전철의 성장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약 100년 전에 이케부쿠로역이 생긴 후 역 근처에 예술마을(파르테논, 몬파나스)이 형성됨

- 1930년대에 남나가사키에 있던 목조건물에 초기 일본만화 거장들이 자리잡음
- 1970년대 도시성장에 따라 역 주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부도심화 과정을 겪음
- 1980년대 애니메이션기업의 본격적 집적이 나타남

#### □ 주요 시설

- 애니메이션업체 : Yasima Group, 앵글, 아르엠기획, 윈즈레이싱갤러리, 미교, 데이터링크, 일본교육컨설팅, 타운하우징, 선라이트 등
- 백화점 : 세이부, 파크로, 미츠코시, 도부 등
- 선사인 시티, 메트로폴리탄호텔
- 문화·예술시설 : 문예좌, 도쿄예술극장, 세이부레코드극장, 세이부미술관, 세존미술관, 현대만화도서관, 도쿄예술문화회관, 도부미술관
- 교육시설 : 전문학교과 학원 등(남이케부쿠로 주변)

#### □ 업종

- 애니메이션과 디자인 관련업이 주종임
- 디자인프로덕션(광고제작, 패키지, 프로덕트 등), 봉제인형 디자인, 디자인&일러스트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 등

#### □ 성공요인

##### ① 이케부쿠로 지역의 만화산업 전통

- 만화산업이 등장한 20세기 초 이래로 중요한 만화산업의 중심지였음
- 이케부쿠로역 주변에 미술가들과 만화가들이 모여들었음

##### ② 애니메이션 산업의 토양이 풍부함

- 만화산업이 발달해 있음

- 디지털 영상 및 음향산업이 발달해 있음

③ 도시적 서비스가 존재함

- 도쿄의 부도심으로서 상업업무복합 지역임
- 사무 오피스, 위락 및 서비스활동 집적
- JR 아마노테선 등 대중교통수단이 근접하여 인근 인터넷 집적지인 신주쿠, 시부야, 아키하바라 등과 연결시키고 있음
- 지하철 마루노우치선, 사철인 도부 전철과 세이부전철의 시발역이기도 함
- 젊은 계층의 집적

④ 저렴한 오피스공간의 공급

- 이케부쿠로 일대의 학교와 주거건물을 대규모로 재개발하여 저렴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을 공급하였음

⑤ 원활한 기술공급과 산학연계

- 디지털애니메이션 연구센터(Digital Animation Research Center)를 건설하여 디지털영상의 연구개발과 지원에 관한 산학협동을 총괄하고 있음
- 인근에 교육·연구활동의 집적 : 전자정보전문학교, 국제정보전문학교, 복장미술전문학교, 정보비즈니스전문학교 등과 요요기애니메이션학교(일본 최대의 전문학교), 일본전자전문학교(신주쿠)

다. 아키하바라(秋葉原)

□ 위치

- 도쿄 아키하바라 전철역 인근

□ 성격

- 일본 최대의 전자제품 판매 거점

- 외국 업체들의 입주 1순위 지역
- 전문성 높은 부품, 제품, 상품의 집합체인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의 강점은 전자기술에 관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과 정부의 집적거점임

#### □ 역사

- 아키바 디지털 쇼 케이스 민간 연구소 발족(2000.6) : 통신사업자, 가전 전기, 게임메이커, 콘텐츠계 기업, 지역 기업, 대규모 토지 개발업자, 종합 공사업자, 에너지 기업 등 30개사
- 동경도 산업진흥 비전 00(2000년 7월 28일) 책정 : 아키하바라 지구는 시부야의 비트밸리와 함께 동경 2대 IT관련 산업거점으로서 자리매김

#### □ 추진사업

- 콘텐츠개발사업(콘텐츠 제작 및 개발관련 인재육성, 영상·게임·애니메이션 창작 인재육성)
- 신기술 및 새로운 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사업(첨단모델개발, 설계, 산학연계의 거점 및 연구기관입지, 위성캠퍼스 외)
- ASP, ISP사업(모든 산업의 서포트센터 기능, SOHO, 재택근무지원 등)

#### □ 도입기능

- 창조활동기능(창업인큐베이터, 연구개발, 첨단업무, 교육 등)
- 교류기능(전시, 문화체험, 엔터테인먼트 등)
- 생활 및 산업지원기능(생활편의시설, 숙박, 음식점, 생활지원기능, 공공시설 등)

#### □ 성공 요인

- 전기/전자기술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하기 위한 부가가치창출
- 전기제품 관련 도·소매 관련 산업 및 지원산업의 집적 : 전문성 높은 종업원 전문적인 첨단 정보와 기술의 집적, 거래처와 연관 기업의 네트워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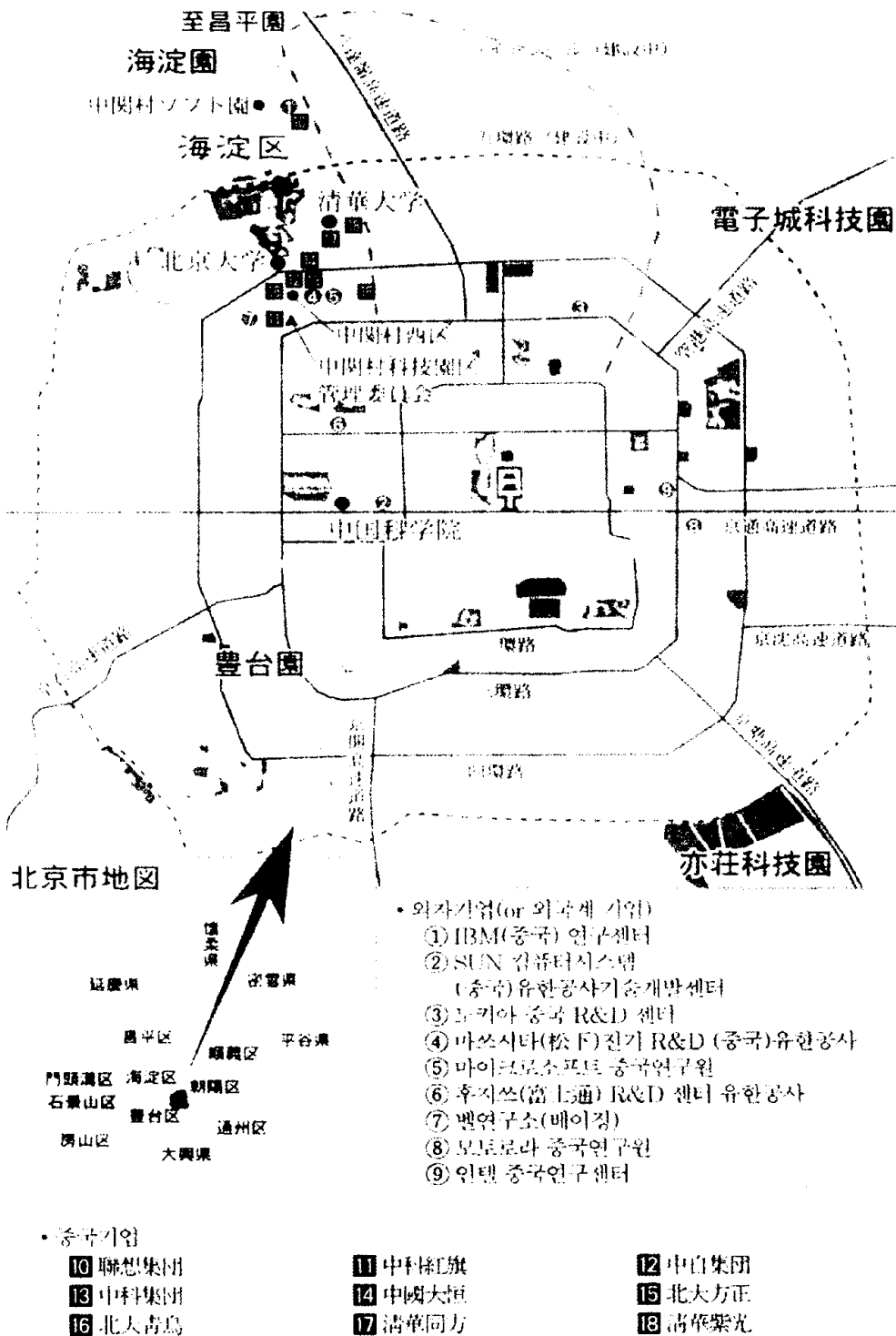
## 2. 중국 사례: 북경 중관촌(中關村) 과학기술원구

### □ 위치

- 베이징시 서북부의 하이디엔취(海淀區) 주변 시가지지역의 약 367.5km<sup>2</sup>
- 행정구역상 海淀園(340km<sup>2</sup>), 豐臺園, 昌平園, 北京電子城, 北京經濟技術開發區 포함(<그림 5>참조)

### □ 성격

- R&D 중심의 두뇌기능 : 소프트웨어, 인터넷, IT관련 R&D기능
- 첨단기술기업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중
- 현재 중국의 53개 첨단산업개발구 중 최초, 최대의 첨단기술개발구임
- 2000년말 현재 약 8224여개사 입주
- 총매출 99년 현재 849억 1000만 위안(약 12조 1000억원)
- 베이징시가 주도하는 중관촌IT교역센터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양방향 교류에서 창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그림 5〉 중관촌 위치도



## □ 역사

- 1980년대 초 : 전자기기, 전자부품 판매상가 집적 시작
- 1988년 : 베이징시 신기술산업개발 시험구(중국 최초 하이테크 산업개발지구) 지정. 약 100km<sup>2</sup> 면적. 근거법률 : 베이징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 잠정조례 (1988.5, 중국국무원)
- 1991 : 중관촌 북부에 정보산업개발구 건설
- 1992 : 잠정조치 우대조치 강화(기업소득세 감면, 기업설립의 원스톱서비스, 베이징시 호적 취득 허용, 토지사용료 경감, 통신인프라 우선정비 등)
- 1997 : 시험구 확대 (남부 평타이취 豐台區 일부와 북부 창핑쎈 昌平縣 일부)
- 1999 : 중관촌과기원구(中關村科技園區)로 개명 (北京市科學技術園區조례)
- 2002 : 중관촌을 5개 지구로 개편 계획(하이디안존(Haidian Zone)와 평타이존(Fengtai Zone), 창핑존(Changping Zone), 전자시티존(Electronic City Zone), 그리고 이주양사이언스&테크놀로지존(Yizhuang Science & Technology Zone))

## □ 주요 시설

- 대학 :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국인민대학 등 70개 이상의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매년 대학졸업자 3만명, 대학원 졸업자 6000명 배출
- 국책연구소 : 중국과학원 산하 전자연구원, 반도체연구소 등 200개 이상의 공공 과학기술연구기관, 38만명 이상의 연구자 및 기술자
- 기업의 R&D 센터 : 8,200개의 국내외 첨단기술기업의 연구센터. 다국적기업의 연구소 1,400개(MS, 인텔, 모토로라, AT&T, IBM, HP, 노키아, 노텔, 루슨트, NEC, 후지쓰, 마쓰시타, 캐논, 도시바 등)
- IT 관련 판매기능 : 2만개 이상의 판매점

## □ 업종현황

- 전자정보기기 (80%), 신소재·에너지·환경(9%), 기계자동화(6%), 의약·바이오(3%)
- PC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인터넷비즈니스 등으로 특화

## □ 성공 요인

### ① 정부의 적극적 지원

- 계획경제체제의 각종 규제 철폐
- 정부에서 우대 정책과 지원책을 동원
- 국내외 기업 입주를 유도
- 지원책
  - 첨단산업개발구로 지정되어 국가투자의 최우선순위로 지원함
  - 토지임대나 공장 건설 등 면에서 세제나 법제적인 면에서 지원
  - 중관촌 주변의 도로망 개선 (도시계획 정비사업)
  - 정부 인정을 받은 기술 인재들에게 베이징 戶口(주민등록에 해당)를 발급
  - 주요 인력들에게 주식 인센티브를 제공(주식 선택권제도 도입)
  -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중관촌연락사무소 설치(2000.7)

### ② 풍부한 고급인력

- 북경대학, 청화대학을 비롯한 73개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을 필두로 한 232개의 연구기관
- 중관촌 인구 50만명 중 60%인 30만명 이상이 학생
- 중국의 석사연구생 중 30%, 박사연구생 중 50%가 중관촌에 집중
- 과학촌에는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의 최고 두뇌 집단 연구인력 15,000명을 보유

### ③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

- R&D를 직접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 중관촌 전자상가, 상지정보산업단지, 연구센터간의 네트워크 형성

## 3. 시사점

### □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

- 일본 비트밸리나 중국 중관촌의 사례 모두 관련 산업의 집적과 더불어 종사자들 네트워크 형성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민간(일본의 경우 BVA 등)이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중관촌의 경우에서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네트워크 형성의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공공이 제공하고 민간이 그 운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함

### □ 다양한 산업 부문의 집적

- 도쿄 시부야를 중심으로 한 비트밸리나 북경의 중관촌 모두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와 판매업체간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성장함. 특히, 중관촌의 경우 전자상가가 집적의 시작이었음
- 연구, 기획, 판매가 집적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발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서울의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도 연구개발, 기획, 전시·판매기능의 지리적 집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예를 들어, 핵심이 되는 멀티미디어콘텐츠연구센터 내에 전시공간과 판매공간을 복합화시키고, 연구개발 및 기획의 바탕이 되는 자료실을 공공이 설치·운영하며, 연구활동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복합적 서비스시설의 제공

- 식당, 은행, 전문사무용품점, 백화점 등 다양한 문화 및 도시서비스시설이 집적하여 적절한 비즈니스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도쿄의 비트밸리나 이케부쿠로, 북경의 중관촌 등은 모두 부도심 이상의 공간위계를 지닌 지역으로 여러 도시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한 지역임

□ 오피스 공간의 충분한 제공

- IT산업,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 콘텐츠 개발 업체 등 IT서비스업은 오피스 공간을 필요로 함
- 따라서 이들 고부가가치 IT서비스업이 입지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양질의 오피스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동경이나 북경의 경우는 이점을 인지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오피스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 IV. 동북아 IT거점도시로서 서울의 육성방안

### 1. 육성방향 : IT산업 클러스터 육성

#### □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클러스터(cluster)가 국가나 도시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산업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클러스터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같은 변화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도래와 무관치 않는데,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 및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개발이나 혁신역량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

#### □ IT산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특징

- 클러스터는 ‘상호연관된 구성원들(기업 및 기업활동 관련기관, 공공서비스 등)의 군집’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같은 정의에 비추어 볼 때, IT산업 클러스터는 IT산업관련 구성원의 지리적 집적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을 창출함
-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뢰(trust)에 바탕한 구성원 상호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정보 및 지식 교류, 학습이 필요함
- 이렇게 볼 때 IT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IT산업관련 구성원들의 연계 및 협력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체계이기도 함

#### □ IT산업 클러스터 산업정책의 특성

- IT산업 클러스터 산업정책은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에 IT산업관련 생산, 연구, 지원기능을 집적시켜 외부경제를 극대화하는 ‘시스템’(system)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시스템적 특성은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식의 공유 및 교환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됨을 의미함. 그렇지 않고 특정 요소의 지원이 결핍되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정책의 효율성은 떨어짐
- 이 정책이 지리적 군집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혁신이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지식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친숙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암묵적인 지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 이같은 지식은 장소·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대면접촉을 통해서 쉽게 취득할 수 있음
- IT산업 클러스터 정책에서는 특히 공공의 역할이 중시되는데, 공공은 부족한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로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인프라에 선택적으로 집중·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 IT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해외 동향

- ‘클러스터 경쟁의 시대’라 불릴 만큼 북미, 유럽 등은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국가경쟁력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40여개의 클러스터 설정을 통해, EU는 RIS, RITTS를 통해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대표적인 IT산업 클러스터는 미국 LA의 실리콘 밸리, 뉴욕의 실리콘 앨리, 샌디에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일본 도쿄의 시부야 비트밸리, 중국의 중관촌 등이 있음

#### □ 서울 IT산업 클러스터 정책에의 시사점

- 2002년 11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클러스터 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산자부가 산업클러스터 활성화기본계획을 2003.9까지 마련 예정

- 서울 IT산업의 경우 클러스터의 성숙도는 지역마다 다르나, 지하철 2호선을 따라 강남-서초, 중구-종로, 구로-영등포 IT클러스터 등이 형성되고 있음. 향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서울이 동북아 IT거점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냐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서울은 지하철 2호선 'IT 그린라인'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기업, 연구, 지원기관의 집적 및 클러스터 특수적인 서비스와 인프라 공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클러스터 산업정책의 성공요건임. 이에 서울의 경우 IT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① 시너지 효과 및 외부경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IT 클러스터 구성원을 확대시키고, ② IT 클러스터 구성원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③ IT산업특성에 적절한 집적공간을 제공하며, ④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IT 클러스터 이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2. 육성전략

### 가. 전략 모색 방법 : 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 틀에 입각

#### □ 다이아몬드 이론(Diamond Model)의 의의

-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의 저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나온 이론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근본요인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의 동태적 측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제공. 다이아몬드 이론은 이미 각 국가와 기업에서 적용되어 새로운 경쟁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받아 옴.<sup>4)</sup>

4) 포터는 4년에 걸쳐 10개국, 100여개의 산업분야에서 이 이론을 적용 연구함

- 비록 후속연구에서 다이아몬드 이론이 ①국가의 내부적 요인에만 국한되었고, ②외국인 직접투자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고, ③전세계적으로 일반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나, 산업 클러스터(Cluster)<sup>5)</sup> 정책에 유용한 사고의 틀을 제시해 줌

- 다이아몬드 이론에서 제시한 산업클러스터 발전의 조건은 다음 4가지임

① 조건 1 : 부가가치의 원천은 어디인가 (생산요소 조건)

- 천연자원에 근거하는 경쟁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인적자원 · 기술 · 인프라 등 인위적으로 창조된 자원이 부가가치의 장기적인 원천이 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화학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 · 화학 연구잡지 · 연구소, 기업의 왕성한 연구투자 등에 의한 요소 창조로 국제적인 지위를 쌓아 올렸음.

② 조건 2 : 까다로운 고객이 존재하는가 (수요 요건)

- 국제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 지역 내에 세련되고 까다로운 고객이 필요함.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눈이 높은 소비자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가구 · 구두 · 의약품 · 조명기구를 낳아, 이것들이 또 소비자의 센스를 세련시키는 선순환이 있음.

③ 조건 3 : 강한 관련 · 지원 산업이 존재하는가 (관련 · 지원 산업의 존재)

- 어느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급 산업이나, 기술 개발 등의 지원이나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개발을 담당하는 우수한 관련 산업이 필요함. 예를 들면 덴마크에는, 「식품 가공기-맥주-맥아 · 이스트-발효 기기-인슐린 등」의 서로의 공급 산업, 관련 산업이 있어, 모든 것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5)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 (하버드 · 비즈니스 스쿨 교수)의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1990년)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은 산업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험적 사실이 진술되고 있다.



## ④ 조건 4: 좋은 라이벌은 있을까(기업간의 경쟁)

- 국내·지역 내에서의 격렬한 라이벌간 경쟁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 클러스터의 다이너미즘을 도출함. 예를 들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도 포함한 컴퓨터 업계가 그 전형임.

## □ 전략 모색의 틀 재구성

- IT산업 클러스터 창조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바, 위 4가지 조건에 行政변수 추가
- 행정은 지금까지 규제위주에서 앞으로는 규제완화와 산업여건 조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다시 말해서, 행정은 ‘창조적 인재의 육성’, ‘기술 기반의 정비’, ‘경쟁형 사회경제 시스템에의 개혁’ 등 새로운 산업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행정부문을 추가하여 육성전략 모색을 위한 틀을 다음 <표 4>와 같이 재구성함

&lt;표 4&gt; IT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전략 모색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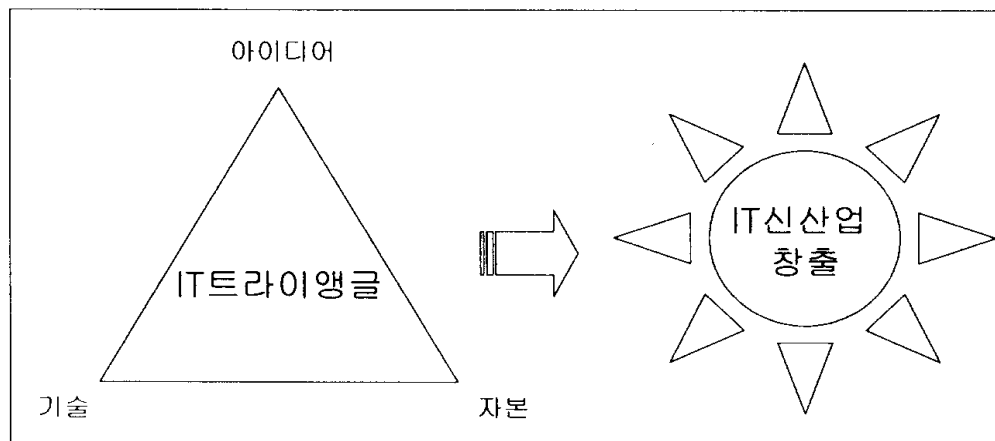
클러스터 창조의 조건		현재까지	미래	전략의 목표
부가가치의 원천	생산요소	원재료	아이디어, 기술	IT신산업 창출
	대학	기초연구 중심	창업형 대학	
	금융	융자 중심	엔젤 등의 창업지원형	
까다로운 고객	시장의 범위	국내 지역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주요 니즈	기능과 가격	환경, 안전	
강한 관련 지원산업	산업조직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 형	제안형 중소기업도 활약하는 수평네트워크형	관련 지원산업육성
좋은 라이벌	시장진입	국내 동업기업	세계 이업종 기업	IT클러스터 연계
	경쟁의 무대	국가간 경쟁	지역클러스터간 경쟁	
행정의 역할		규제위주	규제완화, 산업여건 조성	행정지원능력 제고

## 나. 육성 전략

### (1) 전략 1 : 『IT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한 IT신산업 창출

□ 'IT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림 6>처럼 아이디어, 기술, 자본의 융합

- 'IT트라이앵글'은 아이디어-기술-자본부문간 컨소시움임
- 창조적 아이디어가 세계시장에서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 반대로 자본이나 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상호 연결되어 상품화되고 시너지 효과가 유발되기 위하여 민간 혹은 공공부문이 아이디어-기술-자본부문간 네트워크 조직을 생성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3자 네트워크 조직인 'IT트라이앵글'을 통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의 개발지원, 엔젤 등 창업지원형 자본기반 강화, 자금지원 능력 확대 등을 시행함. 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술 관련 종사자, 대학 및 연구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IT트라이앵글과 의의

□ 아이디어, 기술, 자본부문이 활발히 교류하여 IT신산업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IT트라이앵글 만남의 광장』 조성

- 다양한 분야의 IT산업 종사자들간의 협력활동을 촉진

- 공간구성 : 강의실, 자료실, 세미나실, 카페
- 일본의 Bit Valley Association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멀티미디어컨텐츠산업 관련자들의 정기적·비정기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모임(가칭, IT컨텐츠클럽)을 개최
-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포럼(Forum)을 구성하여 제공
- 전문 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자료실을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컨텐츠 관련 자료 및 해외 동향 등 제공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아이디어 창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2) 전략 2 : 『소비자 교류공간 조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세련되고 까다로운 소비자의 존재가 'IT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인자이므로, 소비자에게 IT상품에 대한 평가와 이들의 수요파악을 위한 『소비자 교류공간 조성』이 필요

- 기대효과
  - 까다롭고 세련된 소비자 창출 및 소비계층 확대
  - 기업간 경쟁 촉진
  - 신규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낮춤

□ 소비자 교류공간 내에 IT전시·판매 및 교류기능 확충

- 공간 구성 : 인터넷방송스튜디오, 이벤트공간, 공연장, 인터넷카페, 시사회장, 게임시연장, 자유이용공간, 판매공간
- 관련 업종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인터넷, 캐릭터, 이벤트 등 디지털콘텐츠를 전시하거나 공연함
- 전시와 판매를 복합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안테나숍 개념으로 운영

- 공간설계 시 콘텐츠의 속성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고 통합적인 공간 설계 고려
-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 기획
-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여 관련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
- 운영방법 : 초기에는 공공이 운영함으로써 시행 상 위험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차 민간부문에 위임

---

생산자 중심의 『IT트라이앵글 만남의 광장』과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교류공간』을 통합하여 하나의 건물이나 장소에 건설가능. 그러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직접 상호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이의 양자 기능을 가진 건물을 짓되, 2호선 IT Green line의 상징성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명칭도 공모함

---

### (3) 전략 3 :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지원산업 육성

#### □ 편리한 교통여건 및 환경친화적 공간조성 지원

-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망 및 대중교통시설 정비
- 공원, 녹지 공간 확충 및 연계성 강화
-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도입, 차세대 지역냉난방 및 고효율 기기(연료전지, 마이크로 가스터빈, 고효율 흡수식 냉동기 등)를 채택하여 에너지 소비 감소시스템 구축
- 폐기물 최소화와 재이용을 지향하는 자원순환형 시스템 도입

#### □ 생활편익시설 지원

- IT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임. 그러기 위해서는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이 충분히 제공, 지원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4시간형 생활문화, 오락시설을 배치하여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선호하는 사회적 환경(social amenity)을 조성하여야 함

#### □ 쾌적하고 편리한 오피스 공간의 제공 (오피스, 오피스텔, SOHO)

- 오피스는 IT산업, 특히 IT서비스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임
- 오피스 공간이 부족하면 IT산업이 입지할 수 없음
- 서울에는 IT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오피스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오피스 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계천 도심에 오피스 공간을 제공할 필요 있음

####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구축

- IT화에 대응하면서 도시개발을 할 때, 정보환경의 기회를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도, 언제라도, 어디에서도,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임<sup>6)</sup>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면, 대용량의 통신 서비스나 콘텐츠를 스트레스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접속가능하며, 조작이 가전제품 수준으로 용이하다는 것임. 그것은 인간 친화적인 네트워크 컴퓨팅 사회로 진화해 가는 것임.
- 그러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어느날 갑자기 사회전체에 보급되고 정착되는 것은 어려움. 첫 단계로서 잠재력이 높은 도시에서 파이롯트 프로젝트로 전개해 볼 필요가 있음

6) 유비쿼터스는 ㉠브로드밴드·모바일·상시접속의 고정·이동, 유선·무선, 통신·방송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네트워크 상에서, ㉡PC 및 모바일 PC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PDA, 비디오게임기, GPS 단말, 정보가전 등 모든 IT기기가 접속되고, ㉢지금까지와 비교해 훨씬 자유도와 쾌적성이 높은 콘텐츠가 쌍방향으로 순탄하게 흐른 환경이 창출된다고 하는 것임. 특히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6가 표준이 되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모든 기기가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며, 혁신적인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실현되게 됨

### 파이롯트 프로젝트'의 실시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실험지역의 설정과 통신 인프라 정비. 도시 내 특정 지역을 실험지역으로 설정.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 DMC나 청계천 복원 지역, 뉴타운개발지역 등을 상정할 수 있음. 이곳을 대상으로 유선·무선·방송 등을 불문하는 광대역통신인프라(FTTH, FWA, CATV, VDSL 등)를 민관 역할 분담하여 집중적으로 정비. 또 지역 내 집합주택 등에는 전선이나 무선 LAN을 사용한 통신 인프라를 정비.
- 실험지역 중에서 브로드밴드 어플리케이션의 실증. 실험지역의 사람, 주택, 오피스, 공공공간, 자동차 등에 둘러쳐져 있는 광대역통신 인프라 상에서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각종 브로드밴드 어플리케이션(서비스)의 실증을 실험. 예를 들면, 온 디맨드형 공공교통서비스, 개방형 홈 네트워크, 맨 네비게이션 시스템, 팜톱정부(손바닥에 있는 개인화된 행정 포털 사이트), 영화배신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초고속인터넷 대응형 건축물의 정비 촉진. 초고속인터넷 대응형 건물의 건축·설비규격의 설정. 초고속 인터넷 대응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설정

## (4) 전략 4 : 『서울 IT 그린라인 구축』을 통한 IT클러스터 연계

## □ IT산업의 지역별 현황 및 기능분담방향

IT산업 지역		현황	IT 클러스터 기능분담방향
서울시	강남-서초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산업이 발달 (테헤란밸리)</li> <li>· IT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하나 IT서비스업 위주 발달</li> <li>· 인적지원, 금융지원, 정보지원, 민간기술연구소 등이 상대적으로 발달</li> </ul>	· IT서비스업 중심
	구로-영등 포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T제조업이 발달</li> <li>· 여의도를 중심으로 IT서비스업도 발달함</li> <li>· 최근 디지털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IT관련 기업의 입주 경향</li> </ul>	· IT제조업 중심
	상암 D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마포구 상암새천년 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li> <li>·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산업의 집적지이자 동아시아 비즈니스센터로 조성하고자 함</li> <li>· 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임</li> <li>· 핵심유치업종은 방송중심의 M&amp;E업종으로서 디지털기술개발 및 콘텐츠생산업종임</li> </ul>	· 방송중심의 M&E 업종
	청계천 도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특유의 문화역사 자원이 풍부함</li> <li>· 세운상가의 전기, 전자 등 IT산업 기반이 존재</li> <li>· 인적지원기관, 금융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 등 산업지원시설</li> </ul>	· 공연, 공예, 음반, 영화 등 멀티미 디어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경기도, 인천과 관련하여 IT산업클러스터내에서 '공간적 노동분업(spatial division of labour)' 형성</li> <li>· 서울은 IT서비스업위주로 재편되고 있음</li> <li>· 경기도와 인천은 전기기기 및 장치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IT제조업이 주류</li> </ul>	· 공간적 노동분업 하에 서울은 IT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인천은 IT 제조업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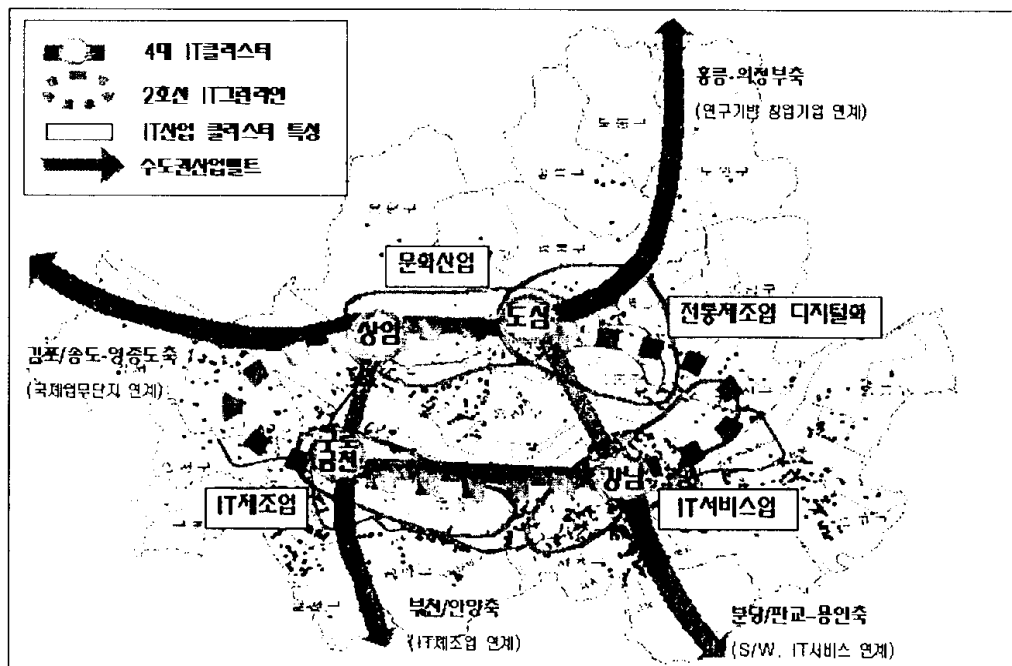
## □ 서울IT그린라인 구축과 수도권 IT네트워크 구상 (&lt;그림 7&gt; 참조)

- 지하철 2호선을 따라 IT Green Line 구축. 이 그린라인 상에 ①강남·서초 IT클러스터, ②구로·영등포 IT클러스터, ③상암DMC IT클러스터, ④청계천 도심 IT클러스터를 집중 육성

→ 개별 특성에 기반한 이들 4개 IT클러스터 육성은 서울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서울을 동북아 IT거점도시로 발돋움시킬 것임

- 서울 IT Green Line을 토대로 하여 수도권과 연결되는 4개 IT네트워크 구상. 즉, ①홍릉-강북-의정부축은 연구와 창업을 연계하는 벨트로, ②구로(금천)-부천-안양축은 IT제조업과 연계하는 벨트로, ③상암-마곡-김포(송도)-영종도축은 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하는 벨트로, ④강남-분당(판교)-용인축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와 연계하는 벨트로 조성

→ 이것은 향후 서울 수도권을 동북아 IT거점권역으로 성장시킬 것임



주 : 서울시2020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서울특별시, 2003)의 내용을 재구성

<그림 7> 서울 IT그린라인과 수도권 IT산업 집적지간 네트워크 구상



□ 서울 IT 그린라인 상에 동북아의 IT관련 인력, 자본, 기술 등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동북아 IT 교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동북아 IT 교류공간은 동북아의 IT산업을 발전시키고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에 소재한 IT관련 인력과 자본 및 기술부문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제공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이것은 동북아 IT업체간 교류는 물론 소비자와의 교류까지도 포함하는 IT네트워크의 결절(node)역할을 수행함
- 교류공간 조성외에도 동북아 IT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IT EXPO', '동북아 IT 포럼', '동북아 IT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동북아 IT 클러스터 체험 투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5) 전략 5 : 『서울IT그린라인 브랜딩』을 위한 행정 지원 제고

□ 클러스터 브랜딩의 필요성

- 특정 클러스터 내에서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에 프리미엄이 붙도록 하는 것임
- 클러스터 브랜딩(Cluster Branding)은 개별업체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개별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옴(예: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서 기업이 사업한다는 자체가 그 기업의 가치를 높임. 반면 서울의 테헤란밸리는 국제적 인지도가 매우 낮음)
- 클러스터 브랜딩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행정당국의 많은 기획과 노력의 산물임. 중요한 것은 치밀하고 섬세한 터치로 클러스터 브랜딩을 정하고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알려나가는 일임
- 클러스터 브랜딩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생기를 불어넣어 세계시장에 이름을 알릴 수 있음

#### □ 서울 'IT그린라인의 브랜딩'

-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서울IT그린라인 상에 소재한 선도적 IT클러스터들에 대해서 그 특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아울러 IT그린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IT클러스터는 각기 클러스터를 특성화한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 하나의 방안으로 해당 지역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클러스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징적 이름을 공모하는 것이 있음 (예: 강남·서초 IT클러스터 → 강남밸리(테헤란밸리는 외국인이 처음들었을 때 이란에 소재한 IT클러스터로 오해할 수 있음), 구로·금천 IT클러스터 → 구로밸리, 상암 IT클러스터 → 상암밸리, 청계천도심 IT클러스터 → 청계밸리. 이 4개의 IT클러스터가 모여서 '서울IT그린라인'이라 부름)
- 해당 IT클러스터별로 상징이 될 만한 건물이나 가로를 조성하거나 지정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음 (예: 마포 상암DMC: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비트밸리의 Q프론트, 청계천 도심: 멀티미디어컨텐츠 센타 건립)

#### □ 서울IT그린라인 브랜딩을 위해 관련 제도의 활용과 법규제 정비

- 지하철 2호선 서울IT그린라인 상에 있는 IT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현행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 서울IT그린라인 브랜딩에 걸맞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IT관련 법제도(예: 인력양성, 자금지원, 건물조성 등)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

## V. 요약 및 결론

- 지식기반화, 무한경쟁시대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신성장산업으로 IT산업의 육성 필요성 큼
- 이에 참여정부도 『동북아 IT중심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지렛대로서 서울을 동북아 IT거점도시로 선택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 이유는 무국경시대를 맞이하여 서울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며, 서울이 현재 지니고 있는 IT산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그러기 위해서는 IT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이 필요함. 클러스터 육성은 클러스터가 자연발생적이든 인위적이든 상관없이 전 세계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 클러스터는 유관산업의 집적화로 유무형의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임
- 이에 서울 IT산업 동북아 거점도시 육성전략을 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하였음.
  - ① 아이디어-기술-자본부문의 [IT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한 IT신산업의 창출
  - ② [소비자 교류공간 조성]을 시장경쟁력 강화
  - ③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련지원산업 육성
  - ④ [서울IT그린라인 구축]을 통한 IT클러스터의 연계
  - ⑤ [서울IT그린라인 브랜딩]을 위한 행정지원능력 제고
- 현재 서울은 동북아 IT거점도시로의 도약이나 아니냐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
  -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서울 IT산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의 IT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없을 것임

- 서울이 동북아 IT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IT관련 주체들, 기업-대학-연구소-정부의 협력체제가 매우 중요함
  - 특히 정부부문에서 IT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비전제시가 매우 중요함
  - 지금부터라도 IT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 나아가 경쟁적 사회경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2001,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 복득규 외, 2003, 클러스터, 삼성경제연구소
- 서울특별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4, 1998, 2002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2002, DMC 사업 실행전략
- 신창호, 서울시 IT산업의 집적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정상은, 2001, 중국의 대표적 IT기업 련상(聯想)의 성장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富士總研, 2002, 東京のネット企業實態調査
- 野村總合研究所, 2001, “都市再生 戰略の提案”, 地域經營ニュースレター, Vol.35.
- 小長谷一之/富澤木實, 1999, 「マルチメディア都市の戰略」, 東洋經濟新報社.
-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1990  
Free Press, New York
- Michael E. Porter,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s Business Review, Nov.-Dec, 1998
- OECD, Knowledge-Based Economy, 1996

## 【 부록 】 서울시 IT관련 산업지원기관 현황

## □ &lt;서울소재 산업관련 대학부설연구소 현황&gt;

대학명	관련분야				소계
	중소기업·제조업지원	일반기술	기계·금속	전자·정보통신	
건국대		산업기술연구원	-	액정연구단	2
경기대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	1
고려대	한국산학연종합연구원	공학기술연구소,	차세대기계설계기술연구소, 첨단소재부품개발연구소	반도체기술연구소 외 2개	7
광운대	산학연기술협력센터	-	-	-	1
국민대	-	생산기술연구소	-	정보통신 ASIC 연구소 외 2개	4
단국대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산업기술연구소	-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 구소	3
동국대	산학기술협력센터	-	-	멀티미디어종합연구소	2
동덕여대	-	-	-	전산정보기술연구소	1
명지대	중소기업연구센터	산업기술연구소	-	-	2
서강대	창업중소기업연구원	산업기술연구소	-	-	2
서울대		공학연구소	분자촉매연구센터 외 7개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 소 외 6개	16
서울 산업대	산학연기술협력센터	산업기술연구소, 산업정보시스템연구센터,	생산기계기술연구소 외 2개	영상연구소, 전자정보기술연구소	8
서울 시립대	산학연컨소시엄센터, 중소기업기술지도센터,	산업기술연구소	-	-	3
성균관대	산학연협동본부	-	-	-	1
세종대	산학기술협력센터	생산기술연구소	신소재연구소	정보디스플레이센터	4
송실대	산학연기술협력센터	생산기술연구소	-	정보미디어기술연구소 외 1개	4
연세대		-	세라믹공정연구실 첨단재료연구소	소프트웨어응용연구소 외 7개	10
이화여대	-	공학연구소	-	정보통신연구소 이화·현대반도체공동 연구소	3
중앙대		기술과학연구소	-	디지털컨텐츠리 소스센터	2
한국외대	정보산업공학연구소	-	-	-	1
한성대	-	-	-	정보통신연구소	1
한양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센터	-	기계기술연구소 외 4개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 소 외 2개	9
홍익대	-	과학기술연구소	시스템자동화연구센터	전자통신연구센터	3
23개 대학	18	16	22	38	9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관기관 디렉토리」, 2001

한국산업단지공단 「2001 제조업지원기관디렉토리」, 2000

## □ 생산 및 창업관련 입지지원시설 현황

구분		일반산업단지(2)	벤처집적시설(73)	창업보육시설 및 지원센터(48)
위치	강남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서울온수지방 산업단지	아주빌딩 등 68개 - 서초구: 교대벤처타워 등 16개 - 강남구: MAS빌딩 등 37개 - 기 타: 키콕벤처타워 등 15개	서울창업보육센터 등 27개
	강북	-	TM벤처연구개발단지 등 5개	동대문구 벤처센터 등 21개
사업 운영 주체	공공	디지털산업단지 (한국산단공) 온수지방산업단지 (온수산단공)	아주빌딩(서울산업진흥재단) 키콕벤처타워(한국산업단지공단) 목동인터넷비즈니스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대벤처타워(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신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19개 - 중앙(연구소): 4개 - 서울시: 4개 - 자치구: 11개
	준공공	-	종로벤처타운(산은캐피탈) IT벤처센터(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
	민간	-	TM벤처연구개발단지 등 67개	세원창업보육센터 등 3개
	대학	-	-	국민대 인터넷창업보육센터 등 24개
	기타	-	-	서울벤처인큐베이터 한국기술벤처재단

자료: 서울벤처넷 홈페이지 <http://www.venturenet.seoul.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icox.or.kr/>

## □ 마케팅 및 유통관련 현황

구분	시설·사업	주요 내용	비고
판로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여의도종합전시장, 잠실중소기업전시관, 중소기업창동전시판매장	서울산업진흥재단
	물류센터	화물트럭터미널, 복합화물터미널 ICD, 공동집배송단지	
	인터넷 중소기업관	인터넷상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전자상품 카달로그 제작, 관련 교육 및 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박람회개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기업들의 정보화 마인드 고취,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의 전자상거래 관련서비스를 종합지원 - 중진공: 정보화 보급 및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정보화교육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화교육 및인력개발 사업	- 중소기업 재직자 산학연계 정보화교육 - 중소기업 정보화리더스 아카데미 - 중소벤처기업 CEO 경영혁신아카데미	중소기업경영환경영원
해외 관련 지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수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위해 해외거점을 확 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및 수출을 지원(현 지 기초환경조사, 법률 및 기술, 마케팅지원, 현지법인설립 및 인큐베이션 지원, 기타 통·번역업무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촉진지원사업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판로 정보제공 등 수 출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수출컨설팅, 해외홍보지원, 수출인 큐베이터 운영, 시장조사 프로그램 사업, 상담회, 해외시장 개척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참여/확대를 희망하나 수출실적과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금융을 지원하여 수출저변 확충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 진을 도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수출에 관한 모든 지원 및 애 로사항을 One-Roof-One-Stop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참여를 촉진	중소기업청 등 15개 기관 참여
	산업협력 촉진사업	선진 자본기술협력의 지속적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파트너로서의 성장을 지원(개별산업협력추진, 산업협력관 교환, 산업협력촉 진단, 투자설명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거래알선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수출기업화사업		KOTRA



## □ 교육 및 훈련기관 현황

구분		직업훈련기관 및 지원기관(34)	고용안정센터(25)
위치	강남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등 21개	강남고용안정센터 등 11개
	강북	영문직업전문학교 등 13개 중앙인력개발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 서울정수기능대학 서울정보기능대학	구의고용안정센터 등 14개
운영주체	공공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서울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서울시) 한남직업전문학교(서울시) 중앙인력개발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2개(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관할(25개 모두)
	민간	대양직업전문학교 28개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현장 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전문가를 파견/기술 지도 실시</li> <li>- 기술지도대학사업: 중소기업 인근대학을 기술지도대학으로 지정, 기술·경영지도</li> <li>-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사업: 기술혁신 교육 전문기관을 선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교육을 실시(서울시 50%, 중기청 50% 부담)</li> </ul>		